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5+6
MAY + JUN
2025 vol.35

특집

가정과 신앙교육



사람 사이 이성근 선교사 : 악동뮤지션(AKMU)의 아버지
청년 시론 힘들지만 비전이 있기에 감사한 삶
문화로 세상 보기 믿음의 유산, 램브란트가 기억하는 어머니

ISSN 2671-8731

Contents

MAY + JUNE · 2025

시선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 부모의 모범으로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가정은 신앙 교육의 산실 | 신국원 04

특집

가정과 신앙교육

바통의 저주 | 양승현 06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라는 복합적인 실천 | 유은희 08

입시와 신앙, 불편한 동거에서 거룩한 훈련으로 | 김보경 10

자녀의 세계관을 빛는 최고의 방법, 부모의 대화 | 유경상 12

사랑과 통제 사이, 신앙으로 세우는 부모의 자리 | 이동미 14

안식일에서 시작하는 유대인의 가정교육 | 김지용 16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는 가정을 꿈꾸며 | 조현희 18

가정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 임종원 20

가정, 교육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 | 전병국 22

사람 사이

이성근 선교사 : 악동뮤지션(AKMU)의 아버지 24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학자, 하나님 주신 직업 소명 | 임춘택 28



2025. 5+6월호 | 제34호(통권 250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주의 불드심에 힘입어 조건호	30
힘들지만 비전이 있기에 감사한 삶 박성민	32

청년 일터 이야기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손형규	34
삶이란 'B'와 'D'사이의 'C'다 황병권	3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위기의 가정,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하기 추태화	38
-----------------------------	----

미술을 보다

믿음의 유산, 렘브란트가 기억하는 어머니 서성록	40
------------------------------	----

책을 보다

손봉호 선생님 회고록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에 대하여 강영안	42
Doing이 아닌 Being을 알려주는 〈부모학교〉 이해리	44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50년의 궤적을 그리다 송인규	46



교회 路

세우신교회 기독교세계관교육 프로그램 소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정재환	47
소감문 :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갈아 끼우며 공유진	48

온전한 지성

노글, 세계관 개념의 역사를 파헤치다 양승훈	50
----------------------------	----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 부모의 모범으로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과 달리 사람은 바깥에서 받는 영향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 관념을 타고 나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가 그 관념을 일깨우는 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 후의 연구와 경험은 생각의 틀은 타고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와 자극은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교육은 사람의 인격 형성과 삶의 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앙이나 세계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기독교는 믿음이란 스스로 깨달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을 들어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므로 교육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로마 10:14). 그러므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교육을 강조했고 그 덕으로 기독교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베이컨(Francis Bacon)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관점이 점점 더 득세하여 현대 교

육은 지식획득과 개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성숙한 인간, 바람직한 인품, 올바른 신앙을 위한 인간교육은 ‘바람직하나 필수적이지는 않은’ 사치로 치부하고 있고, 한국 교육은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기독교계에서조차도 ‘신앙’ 보다는 ‘성경 지식’ 전달을 신앙교육의 핵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좋은 지식이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듯 성경 지식이 바른 신앙에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 교육을 신앙교육의 전부로 취급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오류다. 신앙교육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삶의 목적과 세계관 자체를 바꾸고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지식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지식교육은 로봇이 사람보다 더 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잘 개발해도 로봇은 결코 인격교육과 신앙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 지식, 정보 외에도 감정, 의지, 가치관, 세계관 등 전 인격이 동원되어야 하고 특히 교육자의 모범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격을 갖춘 스승이 인격교육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야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예외가 있겠지만 신앙교육의 기본도장은 가정이고 어렸을 때가 그 적기다. 어릴 때, 즉 “아직 글자가 쓰여 있지 않은 백지상태¹”를 가정에서 보낸다. 그때는 어린이가 취사 선택의 근거도, 능력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 형제자매, 가정의 분위기에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마른 스펀지처럼 주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영향이 기초가 되어 그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주관이 조금씩 형성되고 앞으로 받을 정보와 영향을 선택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이후의 성장과 성숙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영향으로 그 바탕과 기준도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지만, 처음으로 받은 부모, 형제와 가정의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옛날에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부모의 인격과 자란 가정의 분위기를 알아본 것인데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물론 ‘엄마’, ‘맘마’ 등 단어들을 습득하고 사물을 알아보는 인지능력도 얻게 되지만, 어린이가 가정으로부터 받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말, 행동, 태도 등 인격교육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란 것도 바로 유아기에 형성된 그런 상황에서 갖게 되는 신앙을 뜻한다.

사람의 삶은 물론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한다. 어릴 때 받은 가정교육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결정해 버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다. 잘못된 가정,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도 후에 훌륭한 스승, 좋은 책, 제대로 된 친구를 만나서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공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의 인품과 가치관은 가정교육에서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고, 신앙과 세계관도 어렸을 때 가정

에서 그 기초가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부모의 모범이 결정적이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참다운 신앙교육이 이뤄지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 신앙에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살려고 노력하며 가능한 한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노력이 부모들 자신들에게도 유익한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다른 직업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성숙도가 높다. 마찬가지로 절제 없이 편하게 살던 젊은 부부도 자녀를 갖게 되면 책임감을 갖게 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만큼 더 큰 자녀 사랑이 없을 것이므로,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부모라면 먼저 자신들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더 경건하게 행동하며 가정을 더 단란하고 평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므로 진정한 자녀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교회와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다.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기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1. "white paper void of all characters", 존 로크(John Locke)

가정은 신앙 교육의 산실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유아세례 때 부모에게 묻던 교단 예식서 문장이 마음에 남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합니다. <시선>은 부모의 모범이 신앙교육에 결정적임을 강조합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사랑 속에 자란 아이들이 교회와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기에 이를 힘써 실천하도록 당부합니다.

<특집> 첫 글 양승헌 목사님은 인생을 계주에 비유합니다. 이 경주를 성공하기 위한 ‘먼저’와 ‘같이’의 원리를 일러줍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될 방법을 일러줍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와 한국교회에 앞서 우리 집 신앙의 계승을 책임지라고 했고요, 유은희 교수님은 자녀 교육이 성경의 명령이며, 복잡적이고도 전인적인 형성의 수고가 필요한데, 세상의 강한 영향력에 맞서 이 일을 하려면 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합니다. 김보경 교수님은 AI가 가져온 교육의 변화가 신앙교육의 기회이며 가정예배를 통해 성경을 읽고 성찰하는 훈련이 입시 준비에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유경상 교수님은 자녀와 대화를 통한 세계관 교육의 방안을 알려줍니다. 이동미 아동가족상담센터 팀장님은 무관심하거나 허용적이거나 권위적이기보다 ‘권위 있는’ 양육의 환경이 성경적 진리를 전수함에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권합니다. 김지용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 연구원님은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안식일 지키기라

는 성경적 생활 리듬을 통해 가족 공감대 형성과 창조 질서 회복을 경험적으로 전하며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기초라고 했습니다. 조현희 선생님은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두 자녀를 기독교 세계관적 홈스쿨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을 실천해가는 일상을 소개합니다.

홈스쿨 네트워크 임종원 대표님도 오래전 홈스쿨 경험을 통해 신명기의 핵심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칠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홈’보다 ‘스쿨링’에 중점을 두거나 공교육 체제를 집에서 하려는 일은 지양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삶과 교육에 힘을 쓸 것을 강조합니다. 전병국 로고스 고전학교 대표님은 “전문가는 미래를 모르고, 부모들은 자녀를 모르며” 유튜브에 의존해 자라간다고 한탄합니다. 교회의 신앙교육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가정의 신앙교육이 최고의 대안이며, 통합성과 실천성을 갖추고 삶의 현장과 괴리되지 않아야 할 것도 당부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K-Pop에 돌풍을 일으킨 AKMU(악동 뮤지션)의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님을 김셋별 교수님이 대담했습니다. 자녀를 안다는 생각으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더 알기 위해 궁금해하고 답을 기다려 주며 대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가정예배에서 말씀 나눔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 경험도 나눕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홈스쿨링을 불가피하게 1년 쉬게 된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했다

고 합니다. K-Pop 오디션으로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연예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던 자신보다 아이들이 기도로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감사했던 기억을 나눕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감사이신 임춘택 교수님의 회고와 감사가 소개됩니다. 동역회를 통해 대학 시절부터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배웠고,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사역은 이웃 사랑과 섬김이 동역회의 소명임을 깨우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청년 시론〉과 〈청년 일터 이야기〉에서 박성민 형제님은 대학원 공부의 피곤함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적응해가는 가운데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 받은 사랑은 나누려는 결심을 나눕니다. 행가래운동본부의 손형규 형제님은 작가로서의 꿈을 이루고 취업한 직장에 적응하며 배워가는 경험을 간증합니다. 황병권 형제님은 교육컨설팅 전문기업 교육팀장으로 재직하며 전국을 다니며 방황하는 청소년과 직장인에게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며 '진로와 취업' 전문 강사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추태화 교수님은 드라마 〈펜트하우스〉와 〈죽은 시인의 사회〉에 비친 한국 부모와 가정의 성공지향적 사회상을 〈미세스 다웃화이어〉의 사랑 가득한 가정과 대조합니다. 서성록 교수님은 〈미술을 보다〉에서 렘브란트의 〈독서하는 노부〉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성경을 필사하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렘브란트가 보통 초상화와 달리 어머니보다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그린 것은 신앙인으로 키워 준 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일러줍니다.

〈책을 보다〉에서 강영안 교수님은 손봉호 명예 이사장님의 회고록 〈산을 등에 지고 가려했네〉를 읽고 책에 담기지 않은 선생님의 삶의 배경을 소개하며 스승의 모범을 많은 분들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리 교장선생님은 게리 토마스의 〈부모학교〉을 통해 부모

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자유함과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송인규 교수님은 전성민 VIEW 원장님이 편집한 한국 내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50년의 궤적을 보여주는 글 모음집, 〈한국 기독교 세계관 READER〉를 추천합니다.

〈교회로〉에는 분당 세우신교회의 기독교 세계관 강좌가 소개됩니다. 정재환 담임목사님의 목회적 고민에 부합하는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공유진 집사님은 초등부 교사이자 순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기대하게 사는 비전과 영적 힘을 기르고자 하는 각오를 나눕니다.

〈온전한 지성〉에서 양승훈 교수님은 데이빗 노글이 개혁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초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세계관이란 용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세계관 개념의 역사를 정리한 내용과 번역과정도 소개합니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요람입니다. 요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에스더와 다니엘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금번에도 귀한 글을 써 주신 필자들과 변함없이 애써준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선거철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공활을 베풀어 주시어 국가와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꾼이 세워지게 되길 간구합니다. 모든 회원들과 후원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바통의 저주

양승현 (세대로교회 원로목사 / 합동신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인생은 나 혼자 잘 뛰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경주(競走)가 아니다. 인생은 나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주자들이 잘 달려줘야 승리하게 되는 계주(繼走)다. '바통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미국 계주팀을 두고 만들어진 말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톱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대회에서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계주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모두 한가지 이유, 바통 패싱에 실패한 때문이었다. 바통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바통 패싱 구간을 벗어나기도 하고, 바통을 주고받는 일이 꼬여 시간을 지체하기도 했다.

미국 계주팀의 실패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신앙의 계주에 많은 메시지를 준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급변하는 시대의 분위기, 쇠퇴하는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 하나님을 삭제한 교육과 대중 매체들을 통한 비성경적 가치관의 학습 등, 우리의 영적 풍토와 기후는 이전보다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 바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한가? 많은 교회 교육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좌절과

혼란을 겪고 있다.

아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해도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일에 대한 두 가지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첫째, 세상이 어찌 바뀌든 시대가 바뀌든 양태만 다를 뿐 하나님을 등진 세상과 시대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뒤에 작전지휘 본부에서 호시탐탐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퍼붓는 사탄의 의도는 딱 한 가지다.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음으로써 파멸시키고(요 10:10a),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분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 그러니, 그 원수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둘째, 세상이 어찌 바뀌든, 시대가 어찌 바뀌든,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대물림하는 그 백성의 책임과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것을 명명 백백하게 교훈하고 경고하셨다. 신명기 6장 4-9절이

그 핵심적인 메시지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주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대물림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다음 세 가지 원리를 따라야 한다. 이 원리는 새로운 것이 없다. 우리는 신앙뿐 아니라 모든 삶, 모든 기술, 모든 직업을 이런 방식으로 전수받았고 전달하고 있으니 말이다.

첫째로 ‘먼저’의 원리가 있다.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시범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는가? 신명기 4장 6-9절을 묵상하다 이 본문이 I자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4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배우라(Learn)-사랑하라(Love)-살라(Live), 그리고 물려주라(Leave)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물려주기(Leave)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앞에 놓인 세 가지를 실제적 삶의 모범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자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데서 자라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라는 교과서로 그들 앞에 세워놓으셨다. 우리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보게 된다.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첫 단추다.

둘째로 ‘같이’의 원리가 있다. 시범만 본 것으로 어떤 기술을 배울 수는 없다. 숙달된 선배와 같이 해보아야 배운다. 나만 아니라, 아이와 같이 배우고(Learn)-사랑하고(Love)-살아가는(Live), 삶의 현장이 가장 중요한 신앙 전달(Leave)의 학교가 된다.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문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목숨을 건 헌신을 같이 해 나가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손자와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겠는가? 둘째,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복합적인 기독교 양육 훈련

이 어디 있겠는가? 이 일이 소홀해지면 나와 내 자녀의 믿음이 뜨게 된다. 셋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엮어 놓아야 내가 없어도 그들이 흔들거리지 않고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다.

셋째로 ‘스스로’의 원리가 있다. 기생충이 있고 기생 식물이 있듯이 기생(寄生) 믿음도 있다. 숙주(宿主)가 된 부모의 믿음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은 천만 위태로운 믿음이다. 구약의 요아스 왕 같이 되고 만다(대하 24:2). 모든 유기체는 그다음 세대가 더 강하게, 더 많이 살아 번성하는 것을 존재의 첫째 목표로 삼는다. 하물며 우리랴? 내 손주, 내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자신의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발로 주님을 따르는 독립 믿음으로 서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그들이 살아내야 할 세상에 끼칠 우리의 가장 큰 유산과 축복이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한국교회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 집만 책임지면 된다(수 24:15). 우리 집에서 ‘바통의 저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우리 집에서 멋진 계주가 계속되도록 책임지면 된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승현

세대로교회 원로목사이자 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이다. 대학생 시절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여 파이디온선교회를 설립한 이래 어린이 사역자로 살아오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자랄 건강한 교육교회 건본주택을 세우려고 세대로교회를 개척하여 23년간 목회를 하고 원로목사가 되었다. 파이디온의 디렉터스쿨과 교육사 스쿨을 통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계속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사역 교본으로 <어린이를 예수님께>, 다음 세대를 위한 <바나바 할아버지의 이야기 성경>을 저술하였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라는 복합적인 실천

유은희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기도와 감사(살전 5:16-18), 복음 전파(딤후 4:2) 만큼이나 성경이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명령은 자녀교육에 관한 것이다(신 6:4-9).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신의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집과 길에서며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에 행해야 하고, 손목과 미간,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고 상기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할 뿐 아니라 전인적이고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실천이다.

사실 수학 선생님은 수학만 가르치지 않고, 교회 설교자도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해석으로 매주 복음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고 학생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고자 하지만 그것만 할 수는 없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더욱 복잡적이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고, 그다음부터 인성교육, 도덕교육, 예절교육, 사회성교육, 시민교육, 문해력 교육, 지식교육, 양심교육, 지혜교육, 생활교육, 경제교육, 가치교육 등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와 세상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정체성과 소명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와의 긴밀한 연결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신앙교육의 넓은 범주 안에 포함된다.

자녀양육은 중요할 뿐 아니라 폭넓은 지식과 역량, 복

합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일반 교육철학자 넬 나딩스(Nel Noddings)는 흥미롭게도 가정살림과 자녀양육이 기하학이나 영문학을 배우는 것보다 덜 중요한가 물으며, 이를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가르쳐야 할 것과 그 방법을 제안했다. 그렇게 보니 가정살림과 가정생활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중요한 배경이요 내용이다. 실제적으로도 비유적인 의미에서도 그러하다. 자녀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어떤 식단과 습관을 형성해갈 것인지, 청소년들 자녀를 위해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자녀는 돌봄을 받기만 하고 부모는 돌보기만 할 것인지 가정에서의 역할 배분은 어떻게 할지, 우리가정은 말 그대로 핵가족이 될 것인지, 가족구성원 뿐 아니라 낯선 이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대화에는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어떤 소제의 대화가 육성되도록 할 것인지, 여가나 가족 휴가는 우리만을 위한 즐거움과 소비와 보상인지 다른 무엇을 더 의미하는지 등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듯, 실내 인테리어를 구상하듯 배우고 고민할 것이 많다.

이는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가 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집(pedagogical home)을 짓는 것이라 비유한 바와 같다. 가르친다는 것은 배움 기간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거주하며 살아갈 가정을 만드는 것인데, 그 가정이 공유한 리듬과 삶의 양식에 맞추어 살다 보면 거기에 담긴 이야기, 상상, 질서를 내면화하게 된다. 곧 이웃과 세상을 보는 관점, 서로를 대하는 태

도, 사회와 문화에 관여하는 방식, 삶의 목적과 지향, 특정한 종류의 사랑이 형성되는 것이다.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는 모든 가정에는 영적인 벽지와 배경 음악이 있다고 했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음악, 영적인 벽지의 색깔, 가정 삶의 리듬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들에 잘 조율되어 있는가? 혹시 지나친 개인주의와 성공주의, 소비주의 등에 조율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관심, 자족함, 공정거래와 의식 있는 소비에 조율되어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주는 에토스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에 조율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은 덕이라고 고쳐 말하는 허영, 시기, 나태, 탐욕, 분노, 식탐, 정욕과 같은 악덕에 조율되어 있는가?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10년, 20년, 30년을 함께 거하며 살아가면, 신앙과 세계관 및 진선미에 대한 어떤 감각을 형성하게 될 것인가 상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정은 '다공성 경계'(porous boundaries)를 가진다. 핵가족인 우리 가정은 속되거나 악한 것은 어떤 것도 못 들어오도록 화염검을 든 천사가 둘러 지키는 에덴동산이 아니다. 세상이 밀려 들어오고 부모와 자녀가 세상에서 살아간다.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청년이 되어 자녀가 교회를 떠난 한 부모가 "세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악했고, 더 험하게 자녀의 삶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부모도 바뀐다. 자녀 혹은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인해 어떤 신앙과 삶을 어떻게 전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모의 사회적 상상이 변화한다. 세상을 마주한 교회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지원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민주적 가치는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인의 문화적 감수성에는 걸림돌(stumbling block)이 되는 교리는 희석시킨다. 다음세대 프로그램에 흥미와 적실성을 더하기 위해 대중문화와 기술을 과감히 수용하면서도, 세상과 문화전쟁을 하느라 약자와 죄인

을 환대하는 문화를 만들지 못해 사람들을 밀어내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실천의 복잡성은 하나님 나라에 조율된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나, 거칠고 매혹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세상이나, 문화에 길들여지거나 문화 전쟁으로 치우쳐진 교회만큼이나 우리 자녀 내부에 기인한다. 경계성 지능, ADHD, 경계성 성격 장애, 틱장애 등을 가진 자녀의 부모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부모, 인지적인 한계를 느껴보지 못했던 부모, 누구의 속도 한 번 안 끊어 본 듯한 부모들이 자녀로 인해 한계와 수치와 작아짐을 경험한다. 거기다 폴 트립(Paul Tripp)이 말하듯 자녀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과 어리석음이 그들 밖에 있는 세상의 유혹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체감하기도 한다. 심리나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제 부모는 장애와 늦됨, 치료적 개입과 교육적 개입, 뇌의 문제와 죄의 문제 사이에서 분별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또한 권위를 외면하며 자아충족적인 존재이기를 소망하나 사실은 한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매 순간 주님의 영광과 사랑, 마음의 어리석음과 죄를 보여주며, 용서와 복음과 지혜를 나누어 주는 대화를 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실천이다. 주님의 은혜와 심사숙고하는 실천이 필요한데, 5월에는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쉽고 부모를 위로하고 될 수 있도록 자기 시간을 내주는 교회의 이모, 삼촌, 어른신이 필요할지 모른다. **FAITH & LIFE**



글쓴이 유은희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총신대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및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기독교교육을 공부했다. 저서로는 공동 집필한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다〉와 역서 〈기독교적 가르침과 배움〉이 있다.

입시와 신앙, 불편한 동거에서 거룩한 훈련으로

김보경 (전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축구에 진심인 초등생 아들이 운동장을 맘껏 뛰는 모습을 본다. 실컷 놓고 구김살 없이 자랐으면 하는 아량을 베풀다가도, 수학 문제를 모르겠다고 들고 오면 조급한 마음이 생겨 공부 시간과 축구 시간을 비교하며 아이를 닦달하게 된다. 중학생 딸이 미동도 없이 책상에 한참 앉아 있으면,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금세 이름을 부르며 뭘 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 가지 고민이 더 추가된다. 자녀가 학업에 바빠 예배에 소홀한 것 같으면 신앙이 전수되지 않을까 걱정하다가도 한참 공부해야 할 때 교회 활동에만 몰두하는 모습도 불안하다. 최근 7세 고시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을 보니 가정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무관하게 입시와 신앙, 이 둘과 반드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아이가 입시와 신앙 둘 다 잘 해내면 좋겠지만, 나도 못했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 싶다.

IB와 2028 대입개편안

최근 미래 교육의 한 영역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Baccalorea, IB) 교육에 관심이 높다. IB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의 UN 주재원 자녀들의 교육과 대학 입시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나라에서 왔더라도 세계 어느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범용적이고 우수한 교육과정과 평가를 말한다. 모든 학문에 통용되는 핵심 개념 중심의 융합 교육과정으로 토론과 글쓰기, 프로젝트 수행으로 이루어진 교육이다. 한국은 외국인 학교 중심으로 도입되다가, 현재 11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하여 공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IB 스쿨이 문해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설득과 협상을 해내는 학생을 키워내 세계 유수 대학으로 진학시키기 시작하면서 한국수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IB를 차치하더라도 수능은 AI로부터 더 큰 도전을 받고 있다. ChatGPT가 수능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풀고 1~2등급 점수를 받는다. 교육부도 더 이상 5지선다형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이 미래인재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였는지,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고1들의 내신과 수능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의 핵심은 융합 및 통합과 논·서술형 평가의 확대이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수학과 문화, 여행 지리, 기후변화와 환경생태와 같은 융합 과목을 이수하고, 세분화되었던 수능 선택과목은 사회탐구, 과학탐구로 통합된다. 고교 교사들은 논·서술형 평가 전문성 향상 연수도 받아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논술형 수능(수능Ⅱ)도 논의하고 있다. 지식의 암기보다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목 개편과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이번 개편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공동체에서 길러지는 능력

교육과 입시가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리스도인 교육학자로서 매우 반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도 생각된다. IB도 대입 개편안도 모두 공동체에서 길러지는 능력들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교회는 구역/목장, 셀, 가정예배와 같은 탄탄한 신앙 공동체 문화가 있다. 이곳에서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일을 한다. 성경 텍스트를 읽고, 묵상하고, 내면을 성찰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공유한다. 공동의 사역 프로젝트를 하려면 설득과 협상도 꾸준히 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배경 덕분에 다방면의 경험적 지성이 공유되고 융합적 접근과 리더십이 길러진다.

가정예배, 입시와 신앙이 훈련되는 장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예배는 진로 탐색과 입시 준비의 시간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하고 독자의 삶에 질문을 던지는 열린 텍스트이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성찰이 저절로 된다.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질문, 적용 나눔, 결단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개인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 서서히 찾아가게 된다.

수년간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의 딸이 미국의 한 대학 진학을 위해 면접에 응시하였다. 딸에게 면접관이 ‘한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는 것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한국의 입시에서도 주어진 지문을 읽고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말해야 한다.

세계 어느 대학이든 수험생의 말과 글에서 진정성을 평가한다. 지문의 텍스트를 이해한 후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논리적이면서 진정성 있게 말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고, 내면을 성찰하고 공동체 안에서 적용해 보는 기록한 훈련이 매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 곳은 가정 밖에 없다.

AI가 업무의 70~80%를 해내는 시대가 되었다. 인간은 20~30%의 차별성과 탁월함으로 경쟁해야 한다. AI도 모르고 타인들도 할 수 없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올까? 그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초월하여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은 데이터화 되지 않아 AI가 알 수도 없다. 그 진리를 구하되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가정예배에서 일어날 때 입시와 신앙은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 기록한 훈련이 될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보경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2009~현재)이다.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 석사, 동대학에서 교육공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학교교육, 학부모교육이며, 주요 저서는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가 있다. 대전산성교회 권사로 부모학교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자녀의 세계관을 빛는 최고의 방법, 부모의 대화

유경상 (CTC 대표 / 평택대학교 기독교세계관 MTS 책임교수)



기독교 세계관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결단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전수되고 성숙한다. 공동체는 세계관을 전수할 뿐 아니라 그 세계관대로 살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살도록 부르셨다. 그 가운데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공동체이자 가장 강력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인 가정은 자녀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전수하고 삶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문제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끼며 쉽게 포기하고, 신앙과 성경적 가치를 전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입시 중심의 현실 속에서 자녀의 성적과 성공에 몰두한 부모들은 세계관 형성에 대한 관심을 잃거나 신앙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많은 부모들이 혼합주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기에, 무의식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가치나 세속적 인본주의, 경쟁주의, 성공주의 등을 자녀에

게 전수하고 있다. 신앙이 일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자녀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왜곡된 모델을 보고 배우게 된다. 게다가 양극화 시대의 가치 혼란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며, 가정은 신앙 전수의 터전이 아니라 세속적 세계관이 자리 잡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을 전수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녀교육의 주체가 학교나 교회가 아니라 부모 자신임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언어적·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부모 자신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자녀는 신앙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실제임을 배우게 된다. 결국 부모가 먼저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델이 될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신앙과 삶이 통합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부모

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실한 본보기는 다음 세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할 것인가? 먼저, 가정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독교 세계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서 전수되지 않는다. 자녀가 세계를 바라보는 틀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깊은 관계와 인격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대화는 자녀의 내면을 열고, 스스로 사고하고, 신앙적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대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마음을 여는 대화인 경청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먼저 자녀의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녀의 말을 판단하거나 서둘러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모의 진심 어린 경청은 자녀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게 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약 1:19) 이처럼 경청은 신뢰를 쌓고, 신앙적 대화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

둘째, 생각을 여는 대화인 질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진정한 내면화가 가능하다. 부모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자녀가 스스로 깊이 사고하도록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God)은 이 세상을 왜 만드셨나?"(창조의 목적 이해),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Sin)되었는가?"(세상의 문제와 죄 인식), "세상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Jesus)은 무엇인가?"(예수님과 복음 중심 이해),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Action)은 무엇인가?"(실천적 순종), "이러한 삶을 살 때 어떠한 결과들(Product)이 생길 것인가?"(열매와 소망 기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Prayer)은 무엇

인가?"(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기)라는 질문들은 자녀들이 어떤 주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자기 삶에 신앙을 적용하도록 돕는 기독교 세계관 훈련 도구가 될 것이다.

셋째, 행동을 여는 대화인 피드백이다. 올바른 신앙교육은 생각의 변화를 넘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신앙적 성찰이나 작은 변화를 보일 때 이를 발견하고 즉시 격려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사랑 안에서 부드럽게 삶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피드백은 자녀가 신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지속적인 동력을 공급한다. 칭찬은 성장의 발판이 되고,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지적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한다.

요컨대, 자녀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부모가 자녀와 경청하고, 질문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를 분별하도록 돕고,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 이처럼 자녀가 기독교 세계관을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부모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최고의 교사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유경상

CTC 대표이자 평택대학교 기독교세계관 MTS 책임교수이다. 벤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백석대 박사과정(Ph.D)에서 공부했다. 2007년 '기독교세계관훈련센터'(CTC)를 설립했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 <크리스천 씽킹>,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등이 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사랑과 통제 사이, 신앙으로 세우는 부모의 자리

이동미 (연세대학교 아동가족상담센터 수석팀장)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어 하며, 어떻게 하면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울지 고민한다. 바움린드(Diana Baumrind)라는 아동발달학자는 자녀가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을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양육행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애정'과 '통제'라는 두 축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육행동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무관심한'(neglecting) 유형으로 자녀를 향한 애정표현도 낮고, 적절한 규범과 규칙을 가르치는 통제도 낮은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무심하고 거부적이며 자녀의 다양한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허용적'(permissive) 유형으로 애정의 수준은 높지만 통제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부모가 대신하여 해결하려고 하며, 마땅히 배워야 하는 행동 규칙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는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유형으로 높은 수준의 통제를 보이지만 애정의 수준은 낮은 유형이다. 자녀에게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고 순종을 강요하지만, 자녀가 보이는 다양한 요구와 정서적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네 번째가 바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유형인 '권위 있는'(authoritative) 유형이다. 애정과 통제의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지도한다. 많은 연구결과들은 권위 있는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들이 자존감이 높고 독립심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애정'과 '통제'는 자녀 양육에서 무엇 하나 간과되어서는 안 될 요인인데, 우리는 그 중요성과 원리를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권위 있는 양육행동을 기반으로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지 말씀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엢 6:4)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에 기반한 '존중'이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아니다. 필자의 임상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최근 들어 자녀를 팬스레 노엽게 하는 부모들은 대체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워 자녀에게 분출하는 경우, 혹은 자신의 욕구를 투사하여 자녀의 사회적 성취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부모 자신은 불완전하므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가 자녀를 지도하는 기준이 된다면, 이는 비일관적인 훈육과 비존중이 될 수 있다.

며 자녀에게 분노와 좌절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욕구가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가 훈육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양육의 방향성이 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내려놓고 '존중'의 태도로 자녀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자녀에 대한 존중은 곧 자녀가 원하는 대로 마냥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가르치라'라는 표현은 수동적인 태도나 방임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 자녀가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먼저 인지하고, 삶으로 보여주며,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는 훈육, 즉 바움린드가 강조한 '통제'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뒷받침한다.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제공하더라도 분명한 행동 기준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고, 이는 곧 정서적 혼란과 자기 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애정과 통제가 함께 제시되는 권위 있는 양육을 통해 자녀에게 말씀의 기준을 세워준다면, 자녀는 일생동안 지키게 될 신념체계와 행동 양식을 형성해갈 수 있을 것이다.

3)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7)

부모는 자녀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안내자이며, 영향력 있는 롤모델이다. 신명기의 말씀은 자녀에게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부모 자신이 그러한 가르침에 부합한 삶을 먼저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상담 현장에서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위해 부모들을 코칭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관찰을 통한 학습, 즉 모델링의 효과이다.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는 매우 매력적인 행동 모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반복적으로 지도할 때, 자녀는 그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움린드가 제시한 '애정'과 '통제'라는 두 축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깊이 맞닿아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해준다. 부모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 안에서 자녀가 책임감을 길러갈 수 있도록 돕는 균형 잡힌 양육을 실천해야 한다. 결국, 권위 있는 양육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탁받은 청지기로서의 태도이며, 부모의 성숙한 자기 조절과 말씀에 근거한 양육이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이끄는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이동미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아동가족상담센터의 수석팀장이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와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하고, 아동가족학 상담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이자 사모이기도 하다.

안식일에서 시작하는 유대인의 가정교육

김지용 (서울대학교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 연구원)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만난 유대인의 모습을 바탕으로 유대인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대인은 매우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 각자가 경험한 유대인의 모습은 서로 다르며 일관적이지 않다. 더운 여름에도 검은 양복과 모자를 쓰는 초정통과 유대인,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머리에 키파(kippa)를 쓰고 유대 규례를 지키는 종교적 유대인,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비종교적 유대인 등 유대인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다. 반면, 이러한 다양함 가운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이다.

이스라엘에서 오래 거주하며 가장 인상 깊은 것 중 하나가 안식일이었다. 필자의 이스라엘 생활 초기에는 안식일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대중교통도 운행하지 않고 가게도 다 닫았는데, 이들은 과연 집에서 무엇을 하길래 매주 이렇게 같은 시간을 반복하는 것인가 의문이었다. 심지어 종교인 가정에서는 TV 시청도 하지 않는다. 금요일 오전이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

몰까지인 안식일을 준비하는 분주한 움직임으로 거리가 북적인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위해 빵과 꽃을 사고,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 장을 본다. 오후가 되면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모두가 집으로 향하느라 바쁘다. 군인들도 집에 가기 위해서 3시경이면 끊기는 고속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두른다. 대중교통은 끊긴다고 해도 밖에 다니는 것이 불법이 아닌데, 마치 통금이라도 있는 듯이 모두 서둘러서 집으로 간다.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샤밧 샬롬'(평화로운 안식일)이라고 인사를 주고받는다. 거리는 평화롭다 못해 적막하지만, 평소에 조용한 옆집 어르신 댁에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에 집에서 무엇을 하길래 이들은 때마다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일까?

흔히 안식일이라고 하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생각하지만, 본래 그 의미는 하나님과 만남에 집중하는데 있다. 안식일은 단지 초를 켜고 고요히 있는 시간이

아니다. 초를 밝히는 순간, 안식일이라는 중요한 삶의 루틴이 시작된다. 가족들은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안식일 의식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재정립한다. 로젠츠바이크(F. Rosenzweig)와 헤셸(A. Heschel)에 따르면, 안식일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룩한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의 모습이 되기 위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초기화(reset)하는 과정이며, 창조물로서 본연의 모습을 찾는 날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작으로 가족, 이웃, 그리고 세상과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 안식일의 실천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며 유대인 가정교육의 시작이다. 설령 시험을 앞두었거나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회복과 공감이라는 가정교육의 핵심을 실천한다. 이것이 유대인 가정교육이 그리스도인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이다.

유대인마다 종교성에 차이가 있어서 안식일 의례가 다를 수 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 식사'(Shabbat Dinner)에서 공통된 핵심은 축복과 식사다. 안식일을 축복하고, 음식을 축복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의 주제는 가정마다, 절기마다 다르지만, 그 시기에 해당하는 유대 절기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관련된 전통, 문화, 삶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해마다 같은 루틴을 반복하니깐, 굳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읽고, 그에 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러한 반복된 루틴에서 새로움을 찾는다. 예를 들어, 유월절을 시작하는 안식일이라면, 1년 전, 10년 전, 자녀가 태어나기 전 등 출애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제낙(M. Rosenak)에 의하면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성경에 나온 유월절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사건으로 변하게끔

한다. 이러한 역동성이 있기에 안식일이라는 루틴에서 나누게 될 가족 간 대화 주제는 다양하다. 먼저 일주일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이야기를 나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좋은 이야기만 오고 가는 것은 아니다. 정치와 같이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어렵고 무거운 얘기도 오간다. 삶에 대한 격려와 조언 등은 부모만의 몫이 아니다. 어린 미성년 자녀도 부모 사업에 관해 조언할 수 있고, 때로는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의 행동에 관해 질문하고 조언하기도 한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안식일이라는 성경적 루틴에서 과거와 현재를, 부모와 자녀를, 성경과 현실을 연결하여, 가족 구성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적이며 경험적인 교육이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의 가정교육이 기독교에 주는 시사점은 세상이 원하는 효율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성경적 루틴을 택했다는 점이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효율적으로 지키는 루틴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성경적 루틴이므로, 성경이 곧 그들 가족의 경험이 되고,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 민족의 경험이 되어 그들을 견고하게 한다. 이것이 유대인 교육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지용



서울대학교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 연구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고고학을 공부하는 남편을 따라 이스라엘에서 거주했다. 이스라엘 현지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닌 두 자녀를 양육하며 히브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대교육학을 공부했다. 귀국 후에는 유대 교육의 핵심을 기독교 관점에서 적용하고자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는 가정을 꿈꾸며

조현희 (홈스쿨 교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져야 할 땅, 그 땅은 멀게는 열방을 향하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우리가 속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부터 시작된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뤄져야 할 가장 구체적이며 출발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임을 믿는다.

오늘 누군가 내게 내 직업을 묻는다면, 나는 홈스쿨하는 ‘엄마’라 말할 것이다. 그 외에도 현재 노년미시간 대학교에서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며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바로 부모라는 역할이다. ‘엄마’라는 부르심에 집중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다. 안정적 재정 확보와 자녀들의 스펙 쌓기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집에서 ‘엄마’로 지내며 기독교 세계관 바탕의 홈스쿨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부르시고, 현재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임을 믿는다. 내게는 ‘엄마’, ‘홈스쿨 교사’로 살아가는 이 삶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신 좁은 길이자, 내게 허락된 예배와 선교의 자리다.

첫 아이를 출산하며 나는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자녀를 기르는 일에 집중했다. 미국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지금도 그 삶의 방향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

고 엄마로, 홈스쿨 교사로 살게 된 것은 내 선택이자 시기마다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성경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며, 하나님 없이는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임을 말씀하고 있다(시 127:1-5). 또한 성경 곳곳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가르치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다(신 6:4-9, 잠언 22:6 등).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제자 삼으라는 명령도(마 28:19-20) 가정에 있는 자녀에게 예외가 될 수 없는 말씀이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을 말씀하시며,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나는 성경 속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러한 소명을 따라 자녀를 믿음 안에 기도하며 키우고 싶었다. 첫 아이 출산 당시 양가 부모님이 모두 지방에 멀리 떨어져 사신 것과, 이후에 둘째 낳고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가까이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환경은 세상의 다른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자녀를 양육하도록 나를 훈련시켰다. 아이들이 갓난아이 때는 아이를 젖먹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암송 카드로 성경을 암송하고 아이 귀에 들려주며 그렇게 아이를 키웠다. 아이가 커가며 영유아 때에는 아이를 위한 간단한 성경 손유희나 놀이들을 만들어 함께 하기 시작했고, 기독교 교육 자료들을 활용해서 함께 놀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길 소망했다. 자

라가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홈스쿨 커리큘럼을 통해 함께 좋은 책들을 골라 같이 읽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각 과목과 지식을 배워가고 있다. 인간이기에 실수할 때도 있고 엉망인 모습일 때도 있기에 그럴 때는 엄하게 야단치고 훈육할 때도 있었다. 어린 시절 아이와 대화 속에 기억이 남는 한순간을 떠올려본다. 자연 속에서 같이 놀다가 아이가 문득 잡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엄마 정글의 왕이 누구인지 알아? 사람들은 정글의 왕을 사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랬던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양서로 알려진 고전에서도 나타나는 작은 부분들에 숨겨진 악한 모습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비판적으로 책에 대한 평을 내리기도 한다. 한 여름 방학에는 세 아이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드러난 노숙인들을 보며 그들을 돕고 싶다고 하며 기도하다가 돌멩이에 그림을 그려서 그것으로 모금을 해서 제법 큰 액수를 모아 노숙인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고, 나라와 세계의 슬픈 소식을 들을 때면 함께 밤에 손잡고 온 가족이 하는 기도 모임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다.

종종 나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홈스쿨하고 신앙교육을 하는 내용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곤 했는데, 그 자료와 아이디어를 감사하게도 교회 학교와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교육과 선교 자료로 활용하셨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다. 또한 우연한 계기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의 기독교 홈스쿨 나눔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세계 각국에 있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전을 읽는 여성 독서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비록 내 삶이 세상의 누군가에게는 경력 단절, 무보수의 가정주부로 전락한 신세

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선교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원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홈스쿨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가정 안에 믿음의 동역자와 제자를 세우는 길이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어간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가능한 일임을 믿는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가 도와주는 재정, 스펙, 지식과 경험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성과 미래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심을 믿는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매일 밤 기도한다. “주님, 이 아이들은 주님의 아이들입니다. 제 인생에 잠시 맡겨주신 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주십시오. 아이들의 참 하나님, 참 왕, 참 목자가 되셔서 아이들의 분별력과 지혜, 아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더 아름답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미래를, 이 아이들과 함께 온 땅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며 주의 영광을 함께 목도할 미래를 꿈꾸며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조현희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는 엄마며, CHEC Independent School 소속 홈스쿨 교사로서 현재 미국 노던미시간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종교학과에서 학사, 인류학과 석사를 마쳤으며, 입학사정관과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했다. 자녀 출산 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홈스쿨에 집중하며, 미국 현지 교회(CrossBridge Church)의 주일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예술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가정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임종원 (원안크로스+와 전국 홈스쿨 네트워크 GPN 대표)



아이들이 6살, 4살 때인 2003년도에 홈스쿨을 시작했다. 20년도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홈스쿨링은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 한때, 사사기(2:6-12)에 나오는 3세대 이야기를 읽으면서 커다란 충격과 혼란에 빠졌었다. 호기롭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고 공언했던 여호수아 세대(1세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온갖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장로들의 세대(2세대), 안타깝고 의아스럽게도 그 이후로 일어난 세대(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러면 나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고작 1세대인 우리 부부가 과연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고스란히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신명기(6:4~9) 웨마의 말씀에서 찾았다. 이것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가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는 명령이다. 자녀 양육

과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국가나 교회, 학원이나 다른 어떤 기관도 아닌 우리 가정과 부모에게 있다는 명령으로 이끄시는 개인적인 깨달음과 부르심이었다. 1년 365일, 1달 30일, 1주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라는 분부였다.

이 말씀은 신약의 선교 지상명령(마 28:18~20, 막 16:15)과 더불어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가정교육명령이다.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명령이나 문화명령도 역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당부하신 가정명령으로 읽힌다(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통치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정을 만들면서 꿈꾸고 설계하셨던 이상과 비전은 바로 온 가족이 한 가정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모든 일상을 함께하면서 믿음과 지혜를 전수하는 '원안적인'(God's Original Design) 삶의 양식이었다.

그 이후로,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 대대로 즐기게 신앙 가문의 전통을 지켜온 레갑 족속 이야기(렘 35장),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마음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라기 말씀(말 4장), 신약성경에서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등 가정과 관련한 말씀(엡 5장, 6:1~4, 딤후 2장, 벰후 1:1~7)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일관되게 가정 중심, 부모 중심, 말씀 중심의 원안적인 삶의 양식을 회복하라는 성경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가장 잘 담아내는 삶의 구조는 무엇일까? 유럽의 브루터호프 공동체를 탐방하면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 또한 나 자신의 20년 가까운 학교 생활이 그 이후의 실제 삶에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의 가정명령이나 가정교육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오롯이 살아내기 위해서는 태초부터 시작된 원안 교육으로서 홈스쿨링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단지 아이들을 가정 바깥의 외부 기관에 별생각 없이 맡기는 파트타임 부모가 아니라 모든 시간과 경험을 가정에서 함께 공유하는 풀타임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의 사춘기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긍정적인 의미의 사춘기를 온 가족이 함께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홈스쿨링이라면 대개 Home보다는 Schooling에 중점을 둔다. 그중에서도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모든 학문 영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갖 탐구 활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보다 기존 공교육 체제나 커리큘럼을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도 많다. 단지 공간만 가정으로 이동했을 뿐 그 내용이나 방향성은 공교육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대로 학교를 따라가면서 대학 진학이 목표라면,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삶과 교육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그다지 의미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지로 제정하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에 따라 인간들의 필요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생겨난 기관들인 국가와 학교에 무작정 의탁하는 삶의 양태는 한 번쯤 진지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원안 교육에 기반하여 신앙 가문을 세워가는 데에 초점을 맞춘, '왕립가정공동체'(King's Family & Community)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가족의 홈스쿨링 개념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우리에게 홈스쿨링은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즐거운 믿음 여행"이며, "신앙 가문으로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또한 "우리 자녀 각자의 재능과 적성,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가장 적절한 맞춤형 교육"이다.

이제 아이들이 독립하여 우리 집을 떠나 있어 1단계 홈스쿨을 졸업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앙 가문을 대대로 이어가는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전히 유효하기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과 매주 1번 이상 자주 소통하며 서로 일상적인 삶과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의 홈스쿨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임종원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소년 여행자〉의 저자 임하영 군(1998년생, 아르헨티나)과 현재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임예영 양(2000년생, 독일)의 아버지, 기독교 서적 번역가, 홈스쿨 운동가로서 전국 홈스쿨 네트워크 GPN(Godly Parenting Network)과 홈스쿨 교육 기관 '원안크로스+' 대표로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인 〈홈스쿨 여행 캠프〉를 운영 중이다.

가정, 교육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

전병국 (로고스 고전학교 대표)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칸트)

산업화되고 다변화된 세상은 교육도 분업화시켰다. 공적 교육은 학교가 맡고 가치 교육은 교회 같은 종교 기관이 맡는 식이다. 공교육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안학교나 홈스쿨을 선택하기도 한다. 홈스쿨 관련 일들을 하다보니 홈스쿨에 지나친 환상을 품고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있다. 이분들에게 들려줄 자작시 한 편이 있다.

〈대한민국 교육백서〉

공교육은 공허하고 / 사교육은 사기치고
대안학교는 대안이 없고 / 홈스쿨링은 환상에 빠져
전문가는 미래를 모르고 / 부모들은 자녀를 모른다
자녀들은 유튜브가 키우고 / 유튜브는 조회수가 왕이다

교회의 신앙교육은 다를까? 신앙이나 신학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일주일에 1시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 시간에 집중을 시키는 것도 어렵다. 교육한 것의 실천과 결과를 살피는 것은 더 어렵다.

이쯤에서 가정교육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학교나 교회가 가정과 잘 협력해야 한다면, 가정의 인성교육이 문제라는 식의 피상적인 답변은 소용이 없다. 원인은 파편화된 교육 그 자체에 있다. 가정교육이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교육 기능이 학교와 교회와 가정으로 분리되고, 심지어 가정이 교육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기까지 한 것은 인류 역사 전체로 볼 때 근래 짧은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눈으로 보면 총체적 교육이 분열되고 약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의 근원을 밝히는 책인 〈창세기〉를 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최초의 사회 제도다. 또한 최초의 직접적인 사회적 교육 역시 가정의 신앙교육 형태로 설명되고 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keep the
way of the LORD, to do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9)

이 말씀은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원래의 교육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¹

원래의 가정교육은 가정예배 시간표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다. 여호와와 의 도(진리)에서 시작하여 공의와 정의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통합교육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성취될 구속사까지 연결된 교육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과 연결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세계관 교육이요 세계관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공간’으로서의 가정이다. 교실과는 다른 통합적인 ‘물리적 공간’이다. 학습자의 준비와 안정과 자율성을 이끌어내는 ‘정서적 공간’이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친밀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학습 내용으로 행동하는 ‘실천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교육의 큰 문제는 통합성과 실천성을 상실하고 삶의 현장과 괴리된 것이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가정은 삶이 배제될 수 없다. 책상과 밥상이 함께 있고 양복과 잠옷이 나란히 걸려 있다. 예배의 신앙이 설거지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실체가 금방 발각된다. <천로역정>에서 말했던 떠벌이 신자의 민낯이 고발되는 것처럼 말이다.

“신앙이요? 저 사람 마음엔 신앙이 없어요. 집에도, 행실에도 신앙이 없어요. 오직 헛바닥에만 있지요... 밖에서는 성자, 집에서는 악마라고 한답니다. 불쌍한 그 집 식구들은 다 알죠.”

가정교육은 고착화된 이론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과 마음이

드러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함께 올려주는 눈물과 말없이 차려주는 밥상이 그 어떤 진단과 처방 이론도 뛰어넘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가정교육은 개인적 성찰과 사회적 변혁의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아빠와 엄마와 자녀가 한 몸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적 교육이 된다.

교실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효율적인 공간일 수 있지만, 삶의 복잡함, 관계의 밀도, 가치의 실천이 온전히 일어나는 공간은 아니다. 특정한 교육 제도와 교육 방식의 선택에 해답이 있다고 믿으면 교육의 혼란은 끝나지 않는다. 공교육 대신 대안학교나 홈스쿨을 선택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을 어디서 받는가?”가 아니라, “배움과 실천이 단절되지 않는 삶의 공간은 어디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가정은 진정한 ‘신앙’ ‘생활’의 공간이다. 교실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는 통합적인 교육의 공간이다. 참된 교육을 회복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잃어버린 원래의 가정교육에서 배우는 것이다. 인류의 스승들은 그렇게 가르쳤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바로 서면 올바른 길이 열린다. 부모를 섬기고 겸손히 행하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들의 세상을 이루는 근본이다.”(<논어>에서) **FAITH & LIFE**



글쓴이 전병국



인문학 독서 공동체 '고전 읽는 가족'과 고전교육 아카데미 '로고스 고전 학교'의 대표를 맡고 있다. 고전의 길을 따라 인류의 스승들에게 배우며 홈스쿨링을 했고 여러 홈스쿨 가정과 아이들을 섬겨왔다. 저서로 <고전 읽는 가족>, <천년의 독서>, <Delete> 등이 있고, <구글을 지탱하는 기술>, <구글 스토리> 등을 감수했다.

1. 홈스쿨은 제도권 밖의 독립 교육을 의미하므로 본질적인 가정 교육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성근 선교사 : 악동뮤지션(AKMU)의 아버지

한 아이가 잘 자라는 데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의 장은 학교나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특별히 부모의 삶과 대화를 통한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가정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앙과 삶>(5+6월호)은 '가정과 신앙교육'을 특집 주제로 정하고, 가정교육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이성근 선교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해안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인터뷰어

김셋별(성결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 조교수)

일시

2025년 3월 14일(금) 오후 5시 30분

장소

인천 카페 그레이스

김셋별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영광입니다. 우선 지금 하시는 사역 포함하여,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성근 저는 이성근 선교사입니다. 악동뮤지션(AKMU)의 아버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몽골에 선교사로 2008년부터 약 10여 년 정도 사역을 했고, 2018년에는 파송교회와 협의를 통해 비거주 선교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은 고립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을 돕는 단체, <미니스트리 더 함께>를 만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셋별 고립 위기에 처한 선교사라면, 재정적 지원 등의 연결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역인가요?

이성근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후원이 끊긴 채로 선교지에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을 찾아내서, 한국교회와 관계를 연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특정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분들이 아닌 경우, 그리고 심지어 파송교회는 있더라도

후원이 없는 분들이 계셔서, 선교사회 가입이 어렵고 별도의 지원 없이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역입니다. 코로나 직후에 제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 덕에 이제는 부모 교육 강의를 다니는 것이 저의 주 사역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웃음)

김섫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최근엔 부모 교육에 대한 강연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선교사님이 이전에 인터뷰하신 내용들을 읽으면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에 대해 좀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근 제가 직접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다 보니 자녀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실패담이지만, 아이들을 그렇게 대한 경우가 많았고 찬혁이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릴 때와 닮았다고 생각하며, 다 ‘안다’는 생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계기에 제가 이러한 제 모습을 회개하고, 아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그 전에 없던 ‘호기심’이 생기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대신, 더 알아가려고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관점과 태도가 바뀌니까 아이들과의 대화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실제로 몰랐던 아이 모습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와 자녀 말을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아이가 부모의 선생이 될 때가 많습

니다. 어제도 우리 네 식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배 전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수현이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정수기에 어떤 이유인지 고장이 나서, 수리 부탁을 여러 차례 했는데 매번 잘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는 미루고, 우선 다른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아이들이 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 해지가 필요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이 상당 금액 발생했어요. 우리는 수리 부탁을 미리 여러 차례 했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데 고액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지요. 그 과정에서 제가 평소보다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공교롭게, 내용이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 나눔을 하는데, 찬혁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아빠가 예배 전에 한 행동은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상담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진상 고객의 불만만 듣고 기분 안좋은 하루가 되게 한 행동이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명치를 아주 세게 맞은 듯, 매우 아팠습니다. 저는 바로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핸드폰 AI 기능으로 어제 통화한 상담원 이름이 통화 요약으로 남아있길래, 다시 전화를 걸어 그분을 바꿔 달라서 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선생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빠인 저를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김섫별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서로의 변화 때문일 것 같

습니다. 자녀도 아버지를 연약한 인격체로서 바라보면서도 성경에 대한 가치관을 유지하고, 아버지 또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이런 대화가 가정예배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귀감이 됩니다.

이성근 우리 아이들은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경험으로 잘 알아요. 제가 가정예배 전과 후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가정예배에서 기도한 것들이나 나눈 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로의 연합의 장이 되는 걸 느끼거든요. 예전에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든 적이 있어, 하루는 좀 일찍 잠을 청했는데, 찬혁이가 와서 다음 날 “아빠, 내일 아침에 우리 가정예배할까요? 일찍 예배하고 나서 우리 움직여요.”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집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가정예배를 통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김셋별 제가 갖고 있던 가정예배에 대한 기능과 의미가 실현되는 것 같아, 부럽습니다. 혹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예배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이성근 저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듣는 이의 필요에 맞게 깨우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정예배는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에 훨씬 더 잘 맞춰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도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이상 설득이 안되고 한계가 있는데,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충돌하던 의견들이 조정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 각자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고 하나되는 걸 느낍니다. 몽골에 있을 때는 매일 이 시간을 사수하며 지켰고, 지금도 한 달에 한번은 약속해서, 꼭 지키고 있습니다.

김셋별 가정예배가 가족의 연합과 화평의 중심점이 되는 것 같네요. 중요한 신앙교육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유념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성근 주변에서 모성애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많은 교육을 제공하며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고, 홈스쿨링을 하다, 1년의 방학을 불가피하게 가졌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시간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님이 일하고 계셨고, 여기까지 오는 데에 그 시간을 요긴하게 사용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형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제 내면의 문제에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니깐 그간에 힘든 것들이 역전되고, 손바닥 뒤집듯 지옥이 천국이 되더군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워져야 할 대상,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에 필요한 모든 지혜의 씨앗들을 이미 심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상, 우리에게 이미 받은 선물,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 자체에는 관심이 많이 없고, 믿는 부모들도 믿지 않는 부모들처럼 똑같이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해야 하니까 예배를 빠지라고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셋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성공과 행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때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될 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이성근 부모가 살아온 삶에 비추어 자녀의 미래를 단정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탐구할 만한 기회를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신의 믿음, 방식도 내려놓아야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은 저희가 재정적 어려움과 홈스쿨링에 대한 막연함으로 1년간 불가피하게 방학을 가졌는데, 그 시간마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쩔 수 없는 상황마저도 주님이 아이들의 재능이 드러나게 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의도하면서 진행한 게 아니고, 계획한 게 아닌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몽골에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몽골에서 학교에 바로 다닐 수 있었다면,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란 의문이 드는 거죠.



김셋별 가정에 일어나는 일, 일어나지 않는 일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어 자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설계해 가신다는 것을 부모로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이성근 맞습니다. 자녀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K-pop 시즌에서 아이들이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결승까지 올라갔을 때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축하해주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 품을 이렇게 오래 떠나 있던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 당시에 저 바벨론과 같고 마귀의 소굴처럼 느껴지고 두려웠던 연예계에 아이들이 입문하는 게 괜찮을까?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여러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과정이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몽골에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 보니, 오디션 무대 올라가기 전에 찬혁이, 수현이가 만나 서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그 안에서 기도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더군요. 아이들도 이 시기,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아이를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FAITH & LIFE

그리스도인 학자, 하나님 주신 직업 소명

임춘택 (제주대학교 독일학과 교수 / 동역회 감사)



죽히 30년 전 겨울 언저리. 고향 집 근처 여전도회관에서 기독교학문연구회 학술 발표회를 한다는 소식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당시 학부생이었던 나에게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는 끝자리가 허락되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 연구와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발표자 교수님의 한 문장 고백이 내 인상에 남았다. 집에서 매일 배달받은 가제본 소식지는 얇은 분량만큼이나 아쉽지만 반가운 글 손님이었는데, 선배 학자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어느새 <신앙과 학문> 학술지가 되어 서론이 무성했던 지면은 결실을 맺었다.

학부 1학년 여름방학. 나는 한 선교단체에서 찬양, 예배,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을 배우고 경험하는 수련회에 참석했고, 선택 주제 강좌에서 미들톤(Richard Middleton)과 왈쉬(Brian J. Walsh)의 <그리스도인의 비전>도 만났다. 학과의 선후배로 구성된 학술 및 기독교 모임에서 학문과 신앙은 나의 독서와 사유의 중심이었다. 유럽의 종교개혁과 근현대사의 중심 독일문화와 독어독문학은 내가 믿음의 눈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향유하기에 유용했다. 덕분에 나는 성경을 모르고 신앙이 없으면 풀리지 않는 독일 문학의 명작, 노벨문학상

수상작에서 유영하는 기회를 선물로 받았다. 이는 주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스물 서넛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은 아니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였다.

나는 독일문학과 문예학 강의를 들으며 작품과 문학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수강 학생들에게 도울 때가 있었지만, 나의 직업은 의심의 여지 없이 취업을 통한 경제생활이라 믿었다. 공부를 직업으로 삼아서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시도는 적어도 해선 안 된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학자가 되기 위한 능력도 없었을뿐더러 막연하고 요원한 미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하면서 일과 후 경영대학원을 다녀 제대 후 취업하는 계획을 세웠다. 낙방했다. 비록 몇 개월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소속 없는 청춘은 허전하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성령께서 시편 23편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지난 대학 4년 기간에 대해 깊은 감동으로 감사하는 순간을 마련해 주셨다.

나의 경우 다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오직 대학원 진학이었다. 대학원에 들어가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바로 시험을 다시 봐서 입대하리라 다짐하고 입학했다. 그러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학업에 빠져들었다. 몇 년이 지나서 비로소 공군 장교로 근무를 했고 일과 후 경영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서 독일 문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내 나이 29세이던 2004년 2월 제대를 했고 한 달 후 3월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교육과 연구의 삶이 이어졌고 결코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한국과 미국이 FTA 자유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였다. 이단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교주 정명석이 체포, 구속되었다. 중동에서 1차 가자 전쟁이 일어났다. 아이티에서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다. 북한에서 장성택이 처형됐다. 인천과 제주 노선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신경숙 작가와 <창작과 비평>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서 핵탄두 폭발 시험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고 구속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집단 감염이 지속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K-POP 여성 걸그룹 뉴진스가 골든디스크어워즈 신인상을 수상했다. 북한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남한으로 귀순했고,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정부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20년 세월이 지나는 중에, 독일 뮌헨과 베를린에 연수를 다녀왔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작은 보금자리를 함께 꾸렸고, 딸을 선물 받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강의를 다녔고 논문 게재를 쉬지 않았다. 아들도 선물로 받았고, 가족과 함께 창원에 내려와 경남대에서 조교수로 교수 생활을 시작하여 제주대에서 교수로 승진하였다.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약하고 가늘지만, 줄곧 이어온 신앙과 학문의 연결은 작지만 나에게 소중한 선물로 돌아왔다. 2010년 전후 동역회에서 활기차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사역을 통해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의 꽃을 피우고 사람을 키우는 결실을 맺었고, 지방 대학교수로 있었음에도 동역회를 섬기고 가신 여러 간사님 덕분에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를 2년간 할 수 있었다. 구약 <에스터>를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해보고픈 꿈도 논문 작성으로 꾸어보았고, 기독교 철학자 폴 리퀴르의 은유와 이야기 개념은 나의 '이야기로 치유하기' 연구에 든든한 근거가 되었고, 세계문학전집 목록에 있는 독일 시적 사실주의 대표작 <에피 브리스트>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로 그 내용을 뒤바꿔서 보는 힘도 얻을 수 있었다.

개인, 가정, 단체, 국가든 50년 세월을 보내면서 회로에 락 없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가능하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라는 이름이 두 단체가 합하던 시기나 지금이나 좀 길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그 목적과 성격을 정확하고 온전히 담은 네 단어라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더 와닿는다. 앞에서 나열한 세상 풍파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동역회에 몰아쳐도 '신앙과 학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을 잊거나 이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임춘택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에서 문학교수법을 주제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실무진 및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와 편집위원으로 섬겼고,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감사, 제주성안교회와 마산동무교회 집사이다.

주의 불드심에 힘입어

조건호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학부생)



따뜻해진 공기에 괜스리 마음이 상기되는 5월이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온 초봄이 어디 갔나싶게 푸르른 이파리로 가득한 캠퍼스를 볼 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목상하게 된다. 새순이 돋아나고 뻗어나가는 연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가 꼭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하나님은 이토록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아름다움을 주심에 감사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이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됨을 느끼며, 다시금 봄이 오게 하심이 감사하다.

나는 현재 캠퍼스에서 CCC(대학생선교회)의 순장, 서울대 기독교 연합의 기독 신문 <진리는 나의 빛> 기자, 서울대 기독학생 북클럽(학부)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멤버십을 통해 학교 안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크나큰 기쁨이다. CCC에서는 순장으로 섬기며 순종의 기쁨을 누린다. <진리는 나의 빛> 기사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내의 여러 간증을 듣고 전할 수 있어 기쁘다. 기독학생 북클럽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에 감사하다.

그러나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 대학생으로 사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공부와 과제, 근로와 CCC에서의 섬김 등 바쁜 일정으로 개인 경건 생활을 놓치기도 하고 고난과 시험으로 지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는 특히나 메마른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이 자리 잡기 힘든 캠퍼스인 것 같다. 학생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있고 캠퍼스에서 예배 장소를 빌리기조차 힘들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캠퍼스의 상황을 바라볼 때면 막막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나에게 너무나 좁은 길이기에 왕왕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도,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키지 않음을 알지만 나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같다. 말씀을 놓치고 살 때도 있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나 연약한 나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된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 길 잃은 어린 양인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나는 무너짐에도 하나님의 불드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나를 붙들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서서는 동역자와 믿음의 가정을 통해 나를 다시 주 안으로 부르신다.

소속 선교단체와 교회의 동역자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통해 나를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중풍병자는 네 명의 친구가 지분을 뜯어 예수님께 내려보냈기에 치유되었으며(막 2:3-5), 가나안 여인의 딸은 어머니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기에 병에서 나올 수 있었다(마 15:21-28).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와 가족의 중보를 통해서도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특히나 믿음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믿음의 가정인 만큼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다.

나는 수능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고등학생 시절까지는 비록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를 지키셨음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생이 된 후 시험에 들어 마음이 곤고한 때에도 어머니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나를 권면하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나의 아픔을 품고 위로의 기도를 하시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해주신다. 서울대학교에 기적적으로 합격했을 때, 치료받고 있던 병이 3년 만에 치료 종결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나와 함께 드리시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온기였다.

고등학생 시절 하나님이 너무나 미울 때가 있었다. 나

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도 없었으며 차라리 하나님이 없는 게 낫다고도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께서 항상 틀어놓으시던 찬양이 짜증 나곤 했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집 안에 울려 퍼지는 찬양을 나도 모르게 따라부르곤 한다. 집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에 기쁘고 어머니께서 기도해주심에 감사하다. 그렇기에 내 일상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고, 그 소중함에 너무나 감사하다.

믿음의 가정 안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셔도 나의 대학 생활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 내가 해내지 못할 것만 같은 것들, 그리스도인인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들, 겪게 될 아픔과 무게를 마주 치기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불드심에 힘입어 나아갈 것은 분명하다. 믿음의 가정을 함께 기도로 세워가고,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과 함께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기도와 예배로 세워갈 것이다. 선뜻 다가온 봄과 같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학교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길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조권호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 CCC 순장,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의 기독 신문 <진리는 나의 빛> 기자, 서울대 기독교생 북클럽(학부)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기에 글로벌환경경영학과 연합전공 과정을 밟고 있으며, 명륜중앙교회 청년이다.

힘들지만 비전이 있기에 감사한 삶

박성민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과정)



신앙을 지키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신앙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요즘이다.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충남대학교는 집에서 왕복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비해 좀 더 빨리 일어나야 하고, 퇴근하더라도 집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집에 도착하면 피곤함이 밀려오면서 녹초가 되고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말씀은 꼭 읽으려고 한다. 말씀을 먹어야 피곤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가는 버스 속에서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매일의 묵상 말씀, 그리고 대학생 시절 IVF(한국기독교학생회)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묵상했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묵상집의 말씀을 읽으며 퇴근을 하는 삶이 반복되고 있다. 비록 피곤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매일의 말씀에 다시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

올해 3월에 충남대학교 대학원으로 입학한 지 한 달,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입학을 해서일까, 사실 대학원 생활이 나에게서는 조금 버겁게 느껴진다. 나는 학교 소속 연구실에서 유해가스를 정

화해주는 촉매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들이마실 때가 종종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실증 규모에서 진행되는 연구다 보니 연구 중에 생기는 변수도 정말 많다. 또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험이나 수업이 있거나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과제가 있을 때는 더 늦게까지 학교에 있다 보니,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내가 정말 원해서 온 대학원이 아니어서 그러한 마음은 더 커져만 갈 때가 많다.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곳에 온 이유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신 3:22).

내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것을 꺼렸던 이유는 사실 대학원생으로서의 삶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학업적 부분에서나 대학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부분 모두에서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신명이 말씀을 주셨고,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느덧 대학원 생활을 한 지 한 달 가량이 되었

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대학원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아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 연구실에서의 연구와 인간관계, 수업 등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분명 있지만, 주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 또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일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 확실하기에, 또한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기에 힘든 대학원 생활을 소망을 품고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된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과 동생이 나를 맞이한다. 항상 내가 밥을 먹고 오는지 여쭙보시는 아버지, 만약 밥을 못 먹었을 때는 늦은 시간이라도 챙겨주시는 어머니, 나에게 애교를 부리는, 아직은 어린 동생으로 구성된 우리 가족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드리시는 가정예배를 보고 또 그 예배를 통해 성장하게 된 나는 감사하게도, 태어나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신앙교육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가정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나와 배우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작은 교회 안에서 나누고 싶은 꿈이 생겼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

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또 가정 외에 교회, 동아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신다. 사랑을 전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나 또한 받은 사랑이 존재하지만,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는 일은 대학의 동아리와 교회 활동을 통해 훈련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렵다. 특히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꿈꾸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내가 있는 현재 일하고 있는 랩실, 내가 섬기는 교회, 또 내가 가끔씩 놀러 가는 동아리. 그곳을 내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보내어진 곳임을 믿고 그곳 안에서 사랑을 전하도록 힘쓰겠다. 특히나 나를 대학원으로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랩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는 내가 되길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성민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기오염제어연구실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했고, 학부시절 IVF(한국기독교학생회)에서 활동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손형규 (사단법인 행가래운동본부 행정 간사)



초등학교에 다니던 나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간 첫 날, 주님의 믿게 해주시는 은혜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자라면서 겪은 여러 상처로 인해 들은 대로 믿는 아이와 같은 믿음은 점점 열어졌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삶에 대한 냉소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 상태 그대로 대학에 올라갔고, 교회에 가지 않으면 눈치 보이는 상황도 없겠다, 믿지 않은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마음 한 켠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2시 예배가 있었기에 늦게 일어나도 된다는 이유만으로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교회의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받고 영혼을 섬기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고등학생 시절, 나를 위로 해주었던 것은 소설이었다. 자습이 강제되는 시간에 칸막이에 숨어서 읽은 소설은 평범한 로맨스 코미디 소설이었으나 가슴이 울릴 만큼 재미있었다. 이렇게 재미있는 글이 있다니, 재미있는 글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그것을 느낀 날부터 나의 꿈은 작가가 되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와 글쓰기를 병행했고,

매년 열리는 출판사 공모전에 일 년에 하나씩 총 세 작품을 출품했다. 대학 전공을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으로 선택한 것도 쓰고자 하는 소설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으니, 나아가는 모든 길이 작가에의 여정이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 졸업 유예까지 해가며 작품을 준비했으나 제적 직전까지도 데뷔하지 못했다. 졸업 이후 아르바이트 정도만 할 뿐 특별한 직장 없이 글만 쓰던 시간 끝에, 전업 작가의 꿈은 미뤄두고 일 자리를 구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이 인턴이나 자격증 등으로 스펙을 쌓을 때 글만 쓰던 나는 구직 활동에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방식으로 취직이 되었다. 교회에 행사 공간이 부족하여 온누리교회 공간을 빌리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인연이 이어져 온누리교회 산하의 사단법인에서 간사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졸업하고 시간이 꽤 지날 때까지 사회생활 경험도, 적절한 수입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나는 그렇게 생각하

지 못했다. 지금은 취업을 하지만 언젠가는 작가가 되고 싶은데, 이곳에 들어가면 웬지 평생 간사 일만 하며 살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원인 모를 불안감에 기빠해야 할 취업의 순간에도 기빠하지 못하고 어두운 표정만 하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교회의 셀 모임에서 나누었더니, 셀 리더께서 부드럽지만 따끔한 내용으로 충고를 해주었다. 감사해야 마땅한 상황이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 때마다 감사에 대해 들어왔음에도, 감사해야 마땅한 순간마저도 감사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마음을 고쳐먹은 나는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간사 자리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모든 조건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딱 좋은 일자리였다. 우선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혼자서 보낸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타입인 나에게는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 3일 근무에 나의 편의를 봐주셔서 수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그 덕에 일반 직장을 다니는 다른 지체들은 할 수 없는 수요 점심 예배 찬양 인도를 섬길 수 있다. 오가는 시간이 길긴 하지만 지하철 한 번에 갈 수 있고, 근무 시간에 스피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틀 수도 있다. 이렇게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에 눈이 가로막혀 불평만 하고 말았던 것이다.

최근에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다면 이사님들과의 소통 문제다. 법인의 운영을 담당하시는 이사님들은 나와 내 바로 위의 사무국장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장로님이다. 일하면서 가장 많이 소통을 하게 되는 대표 이사님은 무려 여든이 넘으셨고, 바로 위의 사무국장님도 어머니와 동년배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해가 생기는 일도 많고, 일의 방법 등에서 인식 차이가 발견되는 순간도 많다. 그러나 말씀으로 비춰보니, 나에게 꼭 필요한 순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주변의 직장인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원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투성이라고 한다. 원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그것을 통해 겸손과 처세를 배워야 하는데,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장로님들 밑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닌가.

내가 일하는 법인은 저출산 문제, 결혼 문제를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이곳에서 일하기 전까지 ‘그렇구나’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기적인 나를 아시고, 사회적인 일을 하는 사단법인에서 일하게 하시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놀랍다. 앞으로도 작가의 꿈에 계속 도전하면서 일에도 최선을 다할 텐데,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주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형규

사단법인 행가래운동본부의 행정 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송영상뉴미디어 전공을 졸업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의 외대교회 청년이다. 건전한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삶이란 ‘B’와 ‘D’사이의 ‘C’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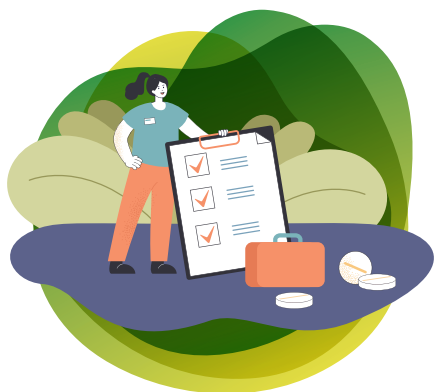
황병권 (교육컨설팅 전문기업 티나에듀 교육팀장)

나는 전국을 다니며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과 청년, 직장인들을 만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진로 & 취업’ 전문강사이다. 학교와 기업을 다니며 마이크를 드는 이 직업은 상당히 멋진 일이다. 나의 강연을 듣거나 상담을 마친 누군가가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어요.”라며 감사를 표현할 때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행복감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하지만 여느 직업과 마찬가지로 이 멋진 직업의 이면에는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존재한다. 양질의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밤을 새우고 전국 팔도를 직접 운전하며 다니기 때문에 이동량도 상당한 편이다. 치열한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과 같은 직업 안정성을 기대하기 또한 어렵다. 그렇다고 보수가 아주 큰 편도 아니다. 이러한 직업적 현실 속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원래 꿈은 중등교사였다. 크게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분은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었고 그리스도인이셨던 선생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의 인생을 기대해 주시고 응

원해 주셨다. 선생님을 보며 나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 체육교육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사범대 졸업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기간제 체육교사를 하게 된 나는 직업적 방향성에 대해 큰 혼란을 경험했다. 막상 학교에서 근무를 해보니 교사는 직업은 학급운영, 교과수업, 평가와 기록, 담당업무, 환경관리 등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것 이외에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다고 느껴졌다. 조금 더 누군가의 비전을 찾아주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갈급함이 있었고 이 갈급함을 가진 채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학교를 나왔다. 나는 임용고시에 계속해서 도전할지 아니면 조금 더 누군가의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을지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했다. 고민 끝에 어릴 적 다녔던 교회의 담임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목사님. 제가 3일만 교회 기도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흔쾌하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 덕분에 2박 3일간 교회 골방에 혼자 앉아 금식하며 기도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



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삶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교회 예배당에서 새벽예배 찬양소리가 들렸다. 홀린 듯 예배당으로 가서 드렸던 새벽예배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머리를 망치로 강하게 맞은 것 같았다. 초, 중, 고등학교들의 희망직업 순위와 결혼 정보 사이트의 선호직업 순위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항상 상위권에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 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교사를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실천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야 아깝기도 하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시선이 걱정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나의 편함과 기쁨과 욕심’이었다. 아직 자신의 비전을 찾지 못한 이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진로 & 취업’ 강사에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현재의 아내인 당시 여자친구가 일하고 있던 교육회사 대표님께 찾아갔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교육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워포인트 2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서 브리핑하며 무작정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다. 감사하게도 그 브리핑을 시작으로 대표님과 인연이 되어 아직도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며 일하고 있다.

한 저명한 철학자가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 “인생이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생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격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Choice(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가 아니라 Calling(하나님의 부르심:소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체력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주변의 선배, 친구, 후배들이 선생님이 되어 교직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순간마다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통해 나를 회복시키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경험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내일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FAITH & LIFE



글쓴이 황병권



교육컨설팅 전문기업 ‘티나에듀’에서 교육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진로 & 취업’ 전문강사이자 직업 상담사로 활동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꿈과 비전을 찾아주고자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서원대학교교회 사역 간사로도 섬기며 청년 사역과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위기의 가정,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하기

〈펜트하우스〉 vs. 〈미세스 다웃파이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전 안양대 교수)

가정의 위기는 현실이 되고

〈펜트하우스〉(2020)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던 때 시청자들은 여러 면에서 반감(反感)을 느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가상의 세계라는 전제 속에서 펼쳐진다는 점을 동의한다. 그럼에도 드라마에 몰입하게 되면 종종 호기심과 대리만족을 하게 된다. 그러나 드라마 안에서 보여지는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모두 인정할 수 없는 시청자들은 반감을 갖게 된다. 〈펜트하우스〉는 상류 사회의 가정을 소재로 하였는데 그런 면에서 호기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여기서는 가정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데 이 작품은 한국적 부모와 가정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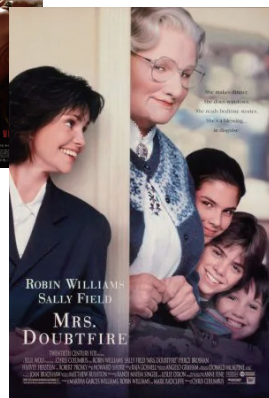
드라마 속 부모들은 성공지향적 인물들이다.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자녀가 잘되기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인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과도하거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데,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왜곡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아빠찬스, 엄마찬스, 부모찬스라는 희안한 용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일부 정치인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가정이 미디어에 폭로, 비판되는 등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부조리극 같은 현대 가정

문제는 우리 시대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관계가 전



<펜트하우스> (2020)



<미세스 다웃파이어> (1994)

통적인 역할로 기능하기보다, 상당히 기능적, 실용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펜트하우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돈으로 해결한다. 자녀에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르치기보다, 돈으로 해결한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모두 사주고, 사실 학원에 보내고, 그야말로 영혼 없는 물량 공세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성장하는데, 현실에서 부모와 함께 한 식탁에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모의 라이프스타일이 그렇게 변해가고, 이에 따라 자녀교육이라는 대명제는 뒷전이다. 가정교육의 아웃소싱이다. 이때 자녀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관계는 걸뜰게 된다. 부모와 자녀는 이런 가정에서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가정이라기보다, 껍데기만 남은 역할극의 무대라 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펼쳐지는 부조리극

(The absurd theater)이 우리 현실 속에 이렇게 재현될 줄은 예전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껍데기만 남은 가정의 자녀

〈펜트하우스〉에서도 그러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과도한 욕심과 욕망에 희생당하게 된다. 절망하고 숨쉴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상징적 장면이 〈죽은 시인의 사회〉(1990/2021)에서 보여진다. 이 영화는 관습화된 교육 현실,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교육 현실을 비판한다.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교사에게 끌리고 급기야 책상 위로 올라가 환호하는 장면은 시대적 명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 학생은 성공한 아버지의 절대적 기대와 요구, 그에게는 가부장적 명령! 결국 죽음으로 내몰린다. 자신을 거부당한 자녀의 비참한 선택이 우리 시대에도 여기저기에서 절규하고 있다.

사랑 안에 회복의 길 있다!

〈미세스 다웃화이어〉(1994, 로빈 윌리엄스)는 재미있고 유쾌하다. 한 단란한 가정, 엄마는 성격적으로 강성인 캐리어우먼이다. 반면 아빠는 아이들 키우며 가사일을 돌보는 가정형. 그런데 엄마는 아빠를 무능하다고 거센 잔소리를 하며 거리로 내몬다. 여기서 가정의 아픔이 있는 듯하다. 아빠는 가정을 사랑하기에 떠날 수 없다. 그리하여 가정에 가사도우미로 위장 취업하고 아이들을 안심시킨다. 아빠의 사랑으로 이뤄진 아름다운 역전극. 아빠의 사랑이 자녀들을 끌어안고 불안안을 해소해 주며, 가정을 새롭게 세운다. 결국은 해피엔딩. 아이들은 사랑의 안온함 속에 행복해하며, 아빠는 자신의 역할에 보람을 느낀다. 엄마는 더 이상 아빠에게 돈 벌어오라고 소리치지 않으며 마음을 돌이킨다. 엄마의 웃음이 돌아온다. 인생의 아기자기한 여러 요소들이 빚어내는 일상의 행복 드라마이다.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펜트하우스처럼 화려한 상류가 아니어도, 특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함께 웃고 울며 가정의 아름다운 연합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 무한경쟁으로 위협받고, 무한 성공으로 벼랑에 내몰리는 지금 시대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일까. 가정의 역할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사회화(socialization), 문화화(enculturation)인데 위기의 현대 가정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라 하겠다.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인간의 조건’(conditio humana)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고 익히도록 해야 함은 의심할 바 없으리라. 이제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변명은 핑계일 뿐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교육은 집안에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했다. 율법의 생활화는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신이 결집되어 있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모든 교육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모든 가정에서 말씀이 가르쳐지도록 애쓰고 힘써야 할 때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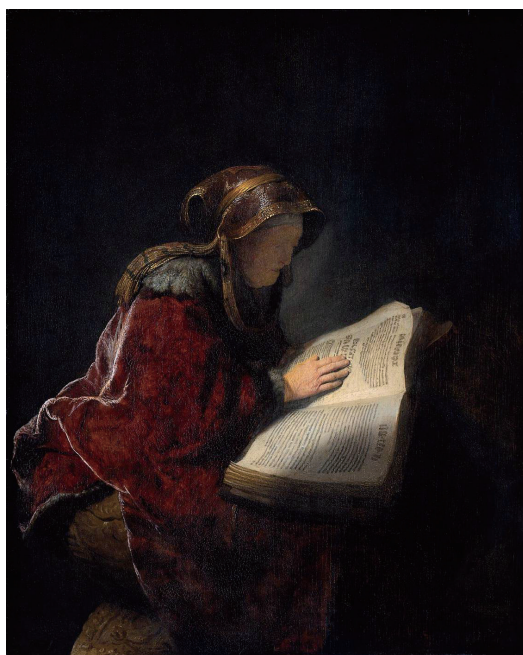
믿음의 유산, 렘브란트가 기억하는 어머니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렘브란트의 <독서하는 노부(老夫)>(Old Woman Reading, 1631)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과연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다.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인공을 밝히는 것이 작품해석의 관건이 된다.

주인공에 대해서 크게 선지자 안나라는 견해와 렘브란트의 어머니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전자는 신약에 등장하는 여선지자 안나라는 견해인데 이 주장을 편 사람은 미술사학자 톰펠(C. Tümpel)이다. 그 근거로 톰펠은 렘브란트의 제자 얀 조리스 반 블리트(Jan van Vliet)가 제작한, 이 유화를 빼닮은 <여선지자>로 불리는 판화를 제시하였다. 안나는 주야로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눅 2:37). 이 그림의 인물이 선지자 안나라면 배경에 성전을 암시하는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한 편이다.

후자의 견해는 렘브란트의 모친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1836년 네덜란드 미술 연구가 스미스(J. Smith)가 제안한 것으로 그 근거로 같은 시기에 그의 제자들도 화가의 모친을 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실제로 1628년에서 1631년까지 렘브란트에게 수학하였던 헤라드 다우(Gerard Dou)는 스승의 모친을 그린 바 있다. <독서하는 노부>(1631-1632)라는 작품은 렘브란트의 그림과 유사하다. 렘브란트가 같은 해에 제작한 에칭 <동양식 두건을 쓴 화가의 어머니



렘브란트, 독서하는 노부, 판넬에 유채, 59.8x47.7cm, 1631. 라익스뮤지엄 소장

니>(1631), <테이블에 앉은 화가의 어머니>(1631)도 렘브란트의 어머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렘브란트의 어머니 넬트헨 윌렘스르드(Neeltgen Willemsdr, 1568-1640년)는 노르베이크(Noordwijk)에서 태어나 라이덴으로 이주, 제분업자 하르멘 헤리츠 반 레인(Harmen Gerritsz van Rijn)과 만나 1589년 개혁된 피터스케르크(Pieterskerk)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을 제작할 당시 그녀는 63세였으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기 위해 만

난 공증인에 따르면 “그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상당히 건강하고 서 있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으며 기억과 모든 감각과 능력을 유지하는 상태였다”라고 한다.

그녀는 믿음의 집안 출신이었으며, 어머니에게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렘브란트는 어머니에게 각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는 그녀를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린 데서도 추정할 수 있다. 노모는 성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오른 손으로 하나둘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중이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필자는 모종의 친근감을 느꼈다. 렘브란트의 어머니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필사하시던 나의 어머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정숙 권사님이 작성한 성경 필사 노트가 여러 권 있는데 그중 한 권을 주셔서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다. 교회의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셨고 교인의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즐거움과 위로를 함께 나누셨다. 교회가 그분의 집이고 가정은 숙소로 비추어져 투덜거리던 시절도 있었다.

기억에 남은 것은 가정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였다. 집안에 풍량이 여러 번 찾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망연자실하기보다 주님을 의뢰하며 위기와 시련을 이겨오셨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삶의 위기를 헤쳐 가는 비결이자 능력의 원천이었다. 사계절 거르지 않고 교회의 새벽기도에 나가 주님께 형편을 아뢰고 얼마나 눈물을 뿌리셨을지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네 남매를 사랑과 온유로 대하셨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차때로 기억력이 크게 감퇴해지셨다. 아니, 거의 잃어버리셨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내가 막내아들임을 밝히고 나서야 겨우 대화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그런데도 조금 뒤에는 ‘네가 누구냐?’라고 재차 물으신다. 헤어질 때면 할아버지가 인근에 살고 계시니 인사드리고 가라고 하시는데 왜 그

런 말씀을 하시는지 난 알고 있다. 반세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분이다. 조부가 생전에 어머니를 총애하셨는데 시간이 흘렀어도 그분만큼은 또렷이 기억하시는 것이다. 사랑과 기억의 관계는 비례하는가 보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니 앙상한 뼈와 핏줄이 가감 없이 느껴졌는데 마치 마른 가지를 만질 때의 촉감과 같았다. 97세의 어머니도 쏠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의 화살을 미처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시 그림 이야기로 돌아간다. 초상화라면 응당 주인공인 어머니가 강조되어야 하나 이 그림은 ‘인물’보다는 ‘성경’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점은 통상 초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점이며, 만일 이 그림이 주문을 받아 제작한 것이었다면 의뢰자로부터 엄청난 잔을 듣거나 심할 경우 주문 취소마저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림을 통해 렘브란트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시 119:105)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리라.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연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성경’이 넬트헌과 렘브란트 사이를 이어주는 ‘생명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 앞에 앉아계신 어머니를 그리려고 붓을 들었을 때 렘브란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철부지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신앙적으로 키워주신 분을 향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아니었을까?.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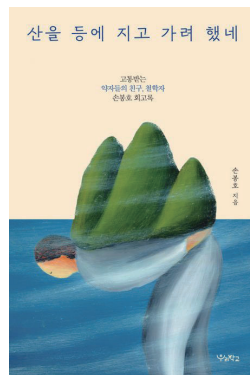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손봉호 선생님 회고록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에 대하여

강영안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 / 손봉호 / 우리학교 / 2025

손봉호 선생님의 회고록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한동대학교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처음 접했다. 송인수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였다. 곧바로 알라딘에 다섯 권을 주문했다. 평소 선생님의 성품을 아는 나로서는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기에 출간 소식은 더욱 반가웠다.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라는 제목은 선생님께서 직접 정하신 제목은 아니리라 생각했다. 선생님의 아드님 손화철 교수를 보자마자 물었다. 출판을 주도한 송인수 선생님의 열정에 선생님께서 결국 뜻을 굽히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선생님을 1973년 3월 초, 그러니까 52년 전, 외대 네덜란드어과 학과 사무실에서 처음 뵈었다. 오랜 시간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보며 느낀 인상을 한마디로 말해 보라 하면 나는 주저 없이 ‘일관성’이라고 말하겠다. 선생님의 말과 글,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시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주장하시는 내용, 인용하시는 저자와 책들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나 같은 말씀만 되풀이하신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말씀하셨지만, 이후에는 ‘도덕적 선구자론’, ‘이기적 합리주의’, ‘소극적 공리주의’, ‘피해자 중심 윤리’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셨다. 부록에 실린 기부에 관한 글을 통해 선생님의 사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선생님은 평생 대학과 교회와 사회, 이 세 영역을 넘나들며 가르치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시민운동을 하셨다. 하지만 선생님은 교육자요, 학자이셨다. 겉으로는 학문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지만 파스칼(Pascal)이 말한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진정으로 철학하는 것이다”(Se moquer de la philosophie, c'est vraiment philosopher)라는 말을 실천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선생님의 박사 논문을 39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읽었다. 나에게도 후설(Husserl)과 칸트(Kant) 철학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 책이지만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면서도 깊이 있는 저술이었다. 강의 역시 언제나 명료했다. 선생님은 대학 강의 못지않게 교회 설교자로도 많은 시간을 쓰셨다. 설교하기 위해 준비한 노트가 강의 노트보

다 몇십 배는 더 많으리라 생각한다. 경실련, 기운실, 공선협은 물론, 환경, 복지, 기부 단체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단체에 참여하시며 평생을 헌신하셨다. 대학, 교회, 사회라는 세 영역에서의 활동은 마치 세 봉우리의 산을 짊어지고 가시는 삶이었기에, 회고록 제목이 된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살아오신 선생님의 삶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해 줄 수 없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김원숙 화백의 통찰도 대단하다.

회고록을 읽으면서 나는 손봉호 선생님이 단순한 학자의 길만이 아닌,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오신 배경을 엿볼 수 있었다. 기독교 신앙이 토대가 되었던 것 외에, 가난했던 유년 시절, 그림에도 도둑이 없던 시골 마을 생활, 도장을 새겨주던 선생님의 사랑, 아이를 잃고 슬퍼한 여인 얘기를 듣고는 새벽에 홀로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선생님은 이것을 ‘사랑의 씨앗’이라 부른다), 6.25 전쟁, 군 생활 중 겪은 부정부패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이 선생님을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운동가로 만들었다. 학교와 마을,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도덕적 성품과 영적 인격 형성(moral and spiritual formation)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굳이 스탠리 하우워스(Stanley Hauerwas)를 끌어들일 필요 없이 이 회고록을 통해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이 책은 도덕교육과 시민교육의 교과서로 쓰기도 남는다.

“서로의 삶을 좀 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문장을 선생님은 회고록 서문과 끝부분에서 두 번이나 인용하고 계신다. 19세기 영국 여류 소설가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본명 Mary Ann Evans)이 쓴 소설 〈미들마치〉 72장에서 “What do we live for, if it is not to make life

less difficult for each other?”라고 주인공 도러시아가 한 말이다. 도러시아는 평판의 문제가 생겼던 의사 리드게이트를 돕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자신이 어려웠을 때 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여성에게는 대학 교육이 금지되었던 시대에 스스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스피노자(Spinoza)의 〈에티카〉, 포이어바흐(F Feuerbach)의 〈기독교의 본질〉, 다비트 슈트라우스(David Strauß)의 〈예수의 생애〉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다. 그녀는 인간 사이의 연대, 특히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주장한 작가이다. 도러시아의 입을 빌려 표현한 엘리엇의 말은 선생님의 활동과 저작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여준다고 하겠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손봉호 선생님의 회고록을 많은 분들이 읽고, 널리 나누어 주시길 바란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잘 지키시며 백세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 드린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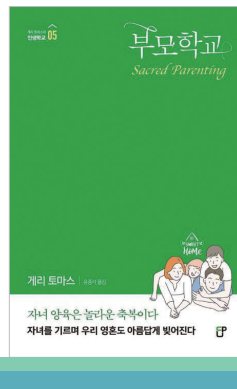
글쓴이 강영안



한동대 석좌교수이자 미국 칼빈신학대학원 철학신학(Philosophical Theology) 교수이다. 서강대 철학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현재는 같은 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외대 졸업 후, 벨기에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나 루뱅 대학교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한국 칸트 철학회 회장, 한국 기독교철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 고려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Doing이 아닌 Being을 알려주는 <부모학교>

이해리 (새움학교 교장)



<부모학교> / 게리 토마스 / CUP / 2007

2007년 초판을 시작으로 21쇄까지 발간한 <부모학교>(CUP, 2021)는 게리 토마스의 인생학교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영적 시각을 열어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양육’(parenting)의 방법론 보다는 ‘부모됨’(parenthood)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부모로서 해야 하는 것(doing)들이 가득한 책들과 달리 이 책은 부모됨(parenthood-the state of being a parent), 즉 부모라는 존재(being)에 집중하며 부모가 되는 것과 관련된 책임과 역할만이 아닌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경험과 감정까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사역자로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게리 토마스는 탁월한 영적 통찰력과 세 자녀를 기른 실제적인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며 자녀 양육이 부모의 영혼을 빛고 부모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깨닫게 해준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새움학교는 매년 신·편입생 부모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나눔을 하는 것으로 첫 만남을 연다. 많은 자녀 교육 도서가 있지만 15년 동안 이

책을 부모 교육의 토대로 삼은 이유가 있다. 첫째,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책이나 강의는 어떤 아이로 길러야 하며 그것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 책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신 하늘 아버지의 깊은 뜻(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도 아이도 다 그분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둘 다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 특히 하나님은 그분의 소중한 자녀를 죄인 된 부모에게 맡기시는 모험을 감행하실 정도로 부모의 성장을 애타게 열망하신다.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우리에게 ‘부모’라는 교복을 입혀주셔서 영성 훈련의 명문 학교로 입학시켜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부부는 자녀 양육법을 가르치는 여러 책과 세미나에서 큰 유익을 얻었지만, 자녀들이 우리를 벗어났다는 사실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자녀 양육은 양방 통행로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희생하는 법(12장)과 죄책감의 처리법(3장)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에게 경청의 기술을 터득하게 했고, 우리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었다.(4장) (중략) 그리고 우리보다 크신 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절감하게 해주었다. 영성 훈련에서 내가 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일 중 하나는 자녀 양육의 경험이다.”(20쪽)

둘째, 이 책은 부모로서 양육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부정적 감정도 하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감정이 죄책감과 분노일 것이다. 자녀를 기르지 않았다면 눈치챌 수 없었던 우리 안의 악마와 수시로 마주하게 된다. 또한 사탄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낙심’으로 이끈다. 하지만 저자는 타락한 부모가 죄인인 자식을 기르도록 부름받은 상황에서 죄책감은 기정사실이며 우리 중에 완벽한 어머니나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고 위로한다. 오히려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부모 역시 하나님이 필요함을 본보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죄책감을 계기로 나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능력 주시는 성령을, 은혜의 공급을 바라본다면, 죄책감은 영적인 세차장이 된다. 세차장은 진을 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썰어려 가는 곳이다! 세차장 안으로 들어간 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어 반대편으로 나온다.”(69쪽)

끝으로 이 책은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가 ‘떠나보내기’임을 알려준다. 자녀가 아기일 때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인 우리도 먹는 것, 입는 것 등 자녀의 모든 환경을 통제하지만 자녀 양육은 고삐를 쥔 우리 손에서 서서히 힘을 빼는 긴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자녀를 어디로 떠나보내야 하는 것일까? 부

모로부터의 독립적 존재가 되는 것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대답할 그날을 준비시켜 주님께 떠나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닌 본을 통한 ‘영향력’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아이를 세상에 홀로 던져두시지 않음을 믿는 ‘절대 신뢰’가 자라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제자들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가 아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가르침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들을 떠나보내고 십자가로 가셨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가르친 영적 진리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자녀 양육이 신성한 소명임을 말하며 마무리한다. 이 말이 첫 장에 나왔다면 참 부담스러운 책임처럼 들렸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 형성이 역할 수행보다 우선되듯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됨’의 정체성을 알 때, 부모다운 생각과 그에 맞는 행동이 나올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자유함과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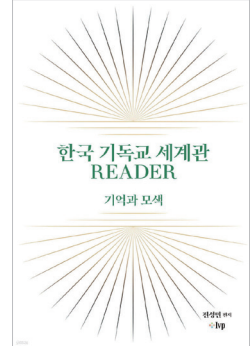
글쓴이 이해리



기독교대학교인 새음학교 교장이자 새음교회 교육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경인교대 졸업 후 10년간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아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며 새음학교에서 2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 교사다.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50년의 궤적을 그린다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한국 기독교 세계관 READER〉 / 전성민 / IVP / 2025

여기 〈신앙과 삶〉의 독자들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들에게 딱 맞는 자료가 출간되었다. 올해 2월 말 IVP가 펴낸 〈한국 기독교 세계관 READER: 기억과 모색〉(이하 〈한기세리〉)이 바로 그 책자이다.

〈한기세리〉가 동역회 회원들에게 딱 맞는 자료라고 할 때, 그것은 비단 이 책자가 동역회의 중심 인물들(손봉호, 양승훈, 신국원)과 인맥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한기세리〉가 동역회의 활동이나 운영의 이론적·사상적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자는 동역회 회원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집필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되었다.

〈한기세리〉는 여느 기독교 세계관 관련서와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구별이 된다. 첫째, 이 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READER(독본)이다. 독본의 성격이 그렇듯, 여기에는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한 중요한 글들(30명이 기술한 70여 편)이 거의 총망라되다시피 했다. 둘째, 〈한기세리〉의 구성 내용은 대체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배열되었다. 이 책을 순서에 따라 읽어가노라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약 50년(1973년~2024년) 동안의 변화나

발전을 감지하게 된다. 셋째, 긴 세월에 걸친 여러 저자의 글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편자의 총괄하에 질서와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다. 〈한기세리〉는 여러 인물들의 글이 무작위적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고 편자의 일관성 있는 관점을 좇아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방금 언급한 세 번째 특징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한기세리〉의 편저자는 전성민 교수이다. 그는 캐나다 밴쿠버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교수이자 원장이다. 그가 관여하고 있는 학교의 이름에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구현하고 가르치고 살아내야 할 ‘기독교 세계관’이 과연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지대한 관심이 그로 하여금 이 READER의 기획·구성·편집을 감행하게 했다. 그가 제공한 해설과 논평 덕분에, 〈한기세리〉에 실린 작품 하나하나가 각각의 위상을 찾고 일관성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엮이게 되었다.

〈한기세리〉는 5부작이다. 1부 ‘시작을 선언하다’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기 간행물들의 발간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정기 간행물들은 〈기독교대학〉, 〈새로운 지성〉, 〈통합 연구〉, 〈복음과 상황〉, 〈신앙과 학문〉이다. 2부 ‘토대를 마련하다’에

서는 한국 교회 내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이나 사상이 배태될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용어가 회자될 수 있도록 이론적이고 활동적인 기반이 수립될 때까지의 글들을 선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73년부터 1999년 사이 기간이다.

3부 ‘논쟁이 펼쳐지다’에서는 그 유명한 2002년의 ‘기독교 세계관 논쟁’(이른바 ‘기세 논쟁’)을 다룬다. 이때 <복음과 상황>의 지면을 통해 기존 기독교 세계관의 존속이나 보존을 옹호하는 일종의 수구론자들과 기독교 세계관의 전폭적 수정이나 폐기를 요구하는 혁신론자들 사이에, 커다란 쟁의가 촉발되었다.

일반 교계에서는 이 격돌의 사태를 잘 알지 못한다. 우선은 기독교 세계관이 주로 교육계 종사자들(교수, 교사 계층)과 젊은이들 사이에 편만해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의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교회 성장이나 제자 훈련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복음과 상황> 역시 주 독자층이 목회자가 아니었다. 소수의 목회자들이 구독을 했지만, 대다수 독자들은 젊은이들과 의식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 이 심각한 공방전이 안중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하지만 수구론자든 혁신론자든 기독교 세계관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거나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교 신앙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기세 논쟁’은 신앙의 의미와 보람을 기초부터 건드리는 전대미문의 소용돌이요 사역과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전의 현상이었다. 그것은 논쟁에 직접 참여하여 예봉을 휘둘렀던 이들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이 사태를 지켜보던 관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23년이나 지나 망각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듯 여겨졌던 예전의 뜨거운 글들이 고스란히 살아나 <한기세리>의 3부를 장식하고 있다. 20년도 더 지난 때였지만 이미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과 본질, 성격과 표현, 타당성과 유용성 등이 논의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슈들의 꽤 많은 부분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방향을 모색하다’로 명명된 4부에는 2002년 ‘기세 논쟁’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의 저작물이 수록되어 있다. ‘기세 논쟁’의 여파가 워낙 거세었던 탓이었지만, 집필의 시기가 2010년 이전의 글일수록 논조가 ‘기세 논쟁’을 뚜렷이 의식한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2010년 으로부터 먼 시기의 저술들은 ‘기세 논쟁’과 상관없이 글의 내용을 개진하고 있다.

마지막 5부인 ‘미래를 바라보다’는 말 그대로 기독교 세계관의 미래에 대한 방향의 정립이나 모색을 염두에 두고 글을 수록했다. 편저자가 크게 신경 쓰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 ‘한국의 복음주의와 기독교 세계관의 관계’, ‘세계관 및 기독교 세계관 개념 자체의 유효성 문제’이다. 이런 주제를 무시하든지 도외시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자면, 2010년 후반부터 2024년 사이의 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기세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국 내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50년의 궤적을 그려 볼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이제는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살피든지 묘사하든지 논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이도, 이 문서 자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동역회 회원들에게 <한기세리>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이다. 건국대학교에서 축산학을, 홍익대학교와 미국 칼빈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러큐스대학교에서 철학(Ph.D.)을 공부했다. 한국 IVF 총무, 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새시대 교회 설교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 사역했다. 저서로는 <책의 미로, 책의 지도>(비아토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이상 IVP), <평신도 신학 1, 2>(홍성사), <성경의 적용>, <분별력 1, 2>(이상 부흥과개혁사) 등이 있으며, 성경 공부 교재를 여러 권 집필했다.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정재환 (세우신교회 담임목사)



2024년 연말, 교과서에서나 봤던 사건이 발발하고, 그와 함께 시작된 사회적 혼란을 마주하게 됐다. 개인적인 당혹스러움을 넘어 목회자로서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시기에 신국원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념과 진영의 논리가 성경의 원리보다 앞서는 듯한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래서인지 강의가 진행될수록 성도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강의를 마칠 때 즈음에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해결된 것 같다는 반가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4주간 동안 이어진 신국원 교수님과의 만남이 그동안 설교와 목양을 해왔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이 있었다. '성경을 보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목에서는 그동안 성도들에게 성경이 삶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자고 이야기 해왔던 것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춤형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여럿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교수님께서 '에릭 리델'(Eric Liddell, 1902-1945)에 관한 이야기를 시간에 쫓겨 다루지 못하심을 아쉬워하셨는데, 바로 한 주전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바로 그 이야기를 예화로 성도들과 나눴었던 사실을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되게 하셨구나"라는 작은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주간의 강의를 마치면서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뤄주시길 요청해서 죄송했고, 더 깊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통해 혼란하고, 비뚤어지기 쉬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가는 세우신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정재환

'세우신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분당우리교회(이천수목사)에서 12년간 사역했다. 분당우리교회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분당구에 '세우신교회'를 개척하고 시무하고 있다.

세우신교회 기독교세계관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소감문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갈아 끼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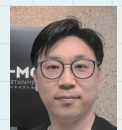
늘 고민이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대부분의 삶을 기독교적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을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말, 행동, 생각은 구별됨 없이 나오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부딪히는 신앙과 삶의 전장에서 나는 대부분 경계인의 태도를 보였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때에는 믿는 사람처럼 어떤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갈팡질팡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쩔잖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향기를 내지 못했다.

그 고민 중에 들은 신곡원 교수님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는 현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었다. 기독교 세계관은 단순히 종교적인 견해를 넘어 진리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창조-타락-구속-회복’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는 관점은 인본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 새롭게 해석하는 틀이다. 이 세상의 첫 시작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창조이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와 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 구속하시고 다시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은 흐릿했던 나의 시선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죄로 가득해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세상은 혼란과 파괴 무질서로 귀속된다. 문명과 과학, 이성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은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두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도 남는다. 이 과정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은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진리를 단호히 붙들되 겸손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안경을 착용하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흐릿한 시선으로 진리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명확히 보게 되면,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본 자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을 씌워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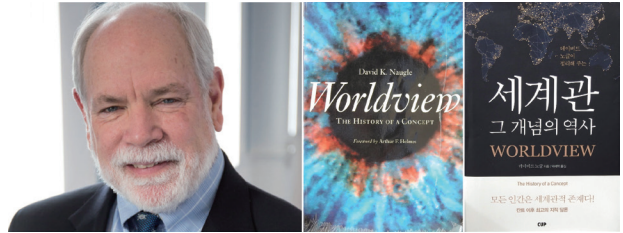
 글쓰기 공유진



세우신교회 집사, 초등부 교사이자 순장. 한국영화 해외 세일즈를 담당하는 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글, 세계관 개념의 역사를 파헤치다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총장)



델러스침례대학교(DBU) 철학과 교수였던 노글(David K. Naugle, 1952-2021)은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텍사스에서 공부했고,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 근무하다가 텍사스에서 별세했다. 한 마디로 그는 텍사스인이었다. 자연스럽게 그는 미국 남부를 휘감고 있었던 세대주의적 신학 속에서 성장하였다. 실제로 그가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던 달라스신학교(DTS, Dallas Theological Seminary)는 탈봇신학교, 그레이스신학교, 무디신학교, 리버티신학교와 더불어 미국 세대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달라스신학교의 공동설립자이자 1대 총장 채퍼(L.S. Chafer)와 2대 총장 왈보르드(J. Walvoord)는 둘 다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자였다.

달라스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노글이 어떻게 세대주의와는 거의 대각선 반대쪽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분야, 즉 개혁주의 신학자가 되었을까? 그가 개혁주의자로 변화된 구체적 과정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필자는 그가 달라스신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이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그는 1987년, 달라스신학교에 ‘C.H. Dodd의 실현된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분석 및 평가’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영국 신학자 도드의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한 것은 미래 종말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실재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서 ‘이미’(already)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실현된 종말론’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도들의 현재적인 삶에 깊이와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노글로 하여금 기독교 세계관을 수용할 준비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흥미롭게도 노글은 이력서에서 자신의 학위논문(Th.D)을 소개한 후에 이어 “참고: 나는 더 이상 달라스신학교 세대주의자가 아니며 개혁주의적 언약 신학을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했다. 이는 그가 개혁주의의 한 분파이자 20세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모체인 신칼뱅주의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의 카이퍼가 시작한 신칼뱅주의 운동은 20세기 후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직접적인 모태가 되었다. 신칼뱅주의에서 사용하는 ‘창조-타락-구속’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구속, 문화명령, 영역 주권, 구조와 방향, 이원론 거부, 이론적 사유의 종교적 중립성 거부 등은 지금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글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기독교 세계관 분야에서 많은 저술을 남기지지는 않았다. 그가 쓴 책들 중에 세계관과 관련된 책들은 세 사람이 공저한 <기독교 세계관 입문>을 포함하여 <지식, 세계관 및 교육>,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역작은 노글이 1998년 텍사스 대학교(U.T. - Arlington)에 제출한 학위논문(Ph.D.)에 기초한 <세계관>이었다. 본서에서 그는 철학, 신학, 사회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관이란 용어의 철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중심은 역시 철학이었다. 11장으로 구성된 책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철학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서는 근대 철학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읽는 것이 쉽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 본서는 세계관이란 개념의 역사를 정리한 가장 방대한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2003년 <Christianity Today>에서 신학 및 윤리 부문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세계관>은 2002년에 미국 어드만에서 처음 출간되었지만 한국어판은 2018년에 CUP에서 출간되었다. 원서와 번역서의 출간 시기가 상당한 간격이 있다. 이는 웨슬리 선교사를 비롯한 몇몇 분들이 오랫동안 본서의 번역을 격려했지만, 책의 내용이 어려워서 얼마나 많은 독자가 있을까 하는 부담과 더불어 번역판 기준으로 708면이나 되었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쉽게 번역을 결정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전체 책을 읽을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필자가 번역서를 감수하면서 썼던 글(<세계관>, 23-28면)이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 재직하면서 오랫동안 ‘세계관의 철학적 기초’ 과목의 주교재로 <세계관>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2016년 봄학기에 노글 교수를 그 과목의 강사로 초청했다. 본인도 기쁘게 승낙했고 일정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외부에 광고해도 된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강의 개설하기 불과 3개월 전쯤, 그로부터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문제로 강의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오랫동안 접촉해서 어렵게 강의 일정을 잡았는데 아쉽게도 모실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노글 교수의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모실 수 있기를 바랐지만 아쉽게도 그는 2021년에 별세하였다.

노글은 학술 활동 외에도 매우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많은 국내외 초청 강연과 더불어 달라스침례대학교의 철학과 학과장을 비롯하여 동대학 교수들의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을 지휘하였다. 또한 친구들은 그가 매우 가정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달라스침례대학교 교무부처장인 디미와 결혼했고, 친자녀는 없이 입양한 딸 코트니만 있었으나 가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그는 골프광이자 탁월한 정원사, 거의 프로에 가까운 기타 및 드럼 연주자였으며, 보기 드물게 젓가락 사용을 즐기는 미국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역시 세계관의 사람이었다. 그의 열정은 그가 자기 애완견의 이름을 ‘카이퍼’라고 지은 데서도 나타난다. 카이퍼가 살아있었다면 이를 기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FAITH & LIFE**

 글쓴이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대 교수를 거쳐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재직했다.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캐나다에 주빌리교회를 개척하여 11년간 담임목회를 하였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를 역임했다.

2025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주제 : 2'사회적 갈등과 기독교 세계관 : 책임과 회복'

일시 : 2025년 5월 31일(토) 13:00~18:00 (대학원생 세션 10:00 ~ 12:00)

장소 :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조형과학관 102호

1) 주제강연(13:30~15:30)

강연 1 : '이념 분열의 시대, 기독교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최현진 교수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강연 2 : '윌버포스의 반노예제 운동 : 사회적 갈등해소와 도덕자본의 정치'

윤영희 교수 (경북대 사학과)

패널토의 : 사회 - 권정태 교수 (호서대 기계공학과)

이명현 교수 (인천대 경제학과) | 김동춘 교수 (현대기독교연구원 대표)

2) 분과별 발표(16:00~18:00)

경제/경영, 인문학, 교육학, 기술과학, 사회과학, 신학/철학, 세계관, 보건/의료, 공연/예술, 학제간 연구

일반주제 분과발표 논문신청 안내

신청 및 요약본 마감 : 2025년 5월 2일(금) / 논문제출 마감 : 2025년 5월 9일(금)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30권 1호(3월 31일 발간)

1편의 이월 논문과 7편의 논문 투고, 총 8편 논문 중 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충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생명원 대표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은퇴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은퇴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신현(고신대 교수), 임춘택(제주대 교수)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행위원 강은정(순천향대 교수),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주) 에이블디벨로프먼트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윤태형(동서대 교수), 장슬기(별무리학교 교사),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환(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부총무 박지희(침신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화철(한동대 교수, 철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해일(경희대 교수, 뇌과학), 신응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엄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충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원장)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VIEW 기독교 세계관 Certificate** : 1년 3과목 수강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적 묵상과 설교, 일터와 기독교 세계관: 개별 수강 가능). 한국에서 6월과 11월 집중 대면 수업과 줌으로 이루어진 과정 (view.edu/cert 참고)
- **VIEWtiful 인문학 과정** :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인문학의 기초 역량을 줌 강의와 녹화본 강의로 제공하는 과정 (VIEWtiful.ca 참고)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VIEW 설명회(서울) : 시간: 6월16일(월), 저녁 7시, 장소: 성서유니온 사역국(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6길 26-1 신화빌딩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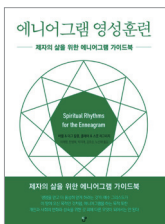
▶ CTC(유경상 대표)

- **지도자 교육**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6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과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준비하는 '5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이 진행 중이다.
 - **부모 교육**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순전한 기독교'가 진행 중이다.
 - **청소년 세계관 교육** : '청소년 하이세 아카데미' 1학기로 '성경과 세계'이 진행 중이다.
 - **대학교 강의** :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 평택대 학부 '기독교 사상이 탐색' & '기독교 문화관', 평택대 기독교세계관 MTS(신학 석사)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라보기'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세계관 MTS 과정 3기 신입생 모집(9월 입학)** : CTC의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학 석사 프로그램이다.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하고 분별하며, 모든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2025년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모집(9월 입학)**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위한 '6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 어린이세계관교육 위한 '5기 기독교세계관 강사과정'을 모집한다
-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 또는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1) 제1회 크리스천 독서 컨퍼런스 개최(2월 15일 월요일 오후 1~8시, 목동제자교회)

2) 곧 출간 될 신간 소식



《에니어그램 영성훈련》

아델 & 더그 칼훈, 클레어 & 스콧 러그리지 지음 | 이재명 등 옮김
- 제자의 삶을 위한 에니어그램 가이드북

《살아있는 뇌 변화하는 뇌》 박시운 지음

- 신경재활 전문가가 전하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뇌과학

《말씀 중심 어린이 365 기도》 사라 영 지음 | 이윤정 옮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5년 2월, 2025년 3월 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5년 2월	2025년 1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5년 2월	2025년 3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2,920,000	620,000	인건비	일반급여	4,855,000	4,855,000
	임원회비	750,000	69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4,795,000	3,627,500		소계	5,255,000	5,255,000
	기관후원금	3,200,000	3,21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0	2,550,000
	월드뷰후원금	0	48,000		사무실관리비	548,457	518,102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27,278	344,421
	CTC후원금	110,000	50,000		우편료	11,440	3,220
	VIEW후원금	960,000	1,010,000		소모품비	0	2,000
	기타후원금	0	0		식비	158,060	171,400
	월보구독료	335,000	415,000		복리후생비	0	0
	학술지원금	0	0		퇴직연금	439,230	439,23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4대보험료	961,810	932,290
	기타	0	0		회의비	36,780	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55,000	65,000
					기타(지급수수료)	133,229	127,630
	소계	13,070,000	9,670,500		소계	2,526,284	5,208,293
기타수입	일반이자	0	1,203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901,090	901,20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960,815	960,92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695,750
	기금차입	0	0		발송비	576,000	648,26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70,000
	예수금	465,820	465,820		소계	576,000	3,414,010
				기타	세금	364,830	18,750
	소계	465,820	467,023		잡비	0	300
					소계	364,830	19,05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150,000	0
					세계관기타	0	0
	소계	0	0		소계	150,00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18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20,00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0	0
	학술지게재료	0	2,330,000		학술지발송비	43,36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조교비	0	0
	소계	100,000	2,530,000		소계	43,360	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4,990,615	1,046,33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1,046,330	1,185,670
	전월 이니시스입금	180,000	10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00,000	0
	소계	5,170,615	1,146,330		소계	1,146,330	1,185,670
당월 수입액		18,806,435	13,813,853	당월 지출액		11,022,619	16,042,948
전월 이월액		9,513,725	17,297,541	차월 이월액 (잔액)		17,297,541	15,068,446

* CMS,이니시스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5년 2월)

5천 강대웅, 강연희, 공승건, 락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봉현, 김상욱, 김새별, 김성권, 김성욱, 김성한,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학,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종일,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백예은,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웅재, 고철웅, 구준호,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승오,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운,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세령, 김수민,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준,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중철, 김지근, 김진성,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노주하, 라영환, 류지호, 류현오,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봉, 양성근,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웅,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태형, 이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희,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준, 이유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형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영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웅,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승진,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한동빈, 한미영, 한신영, 허연, 허현, 홍구하, 홍요셉, 홍종인, 황기철, 황상준, 황성인, 황세한, 황철,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김상균, 2만 강석분, 강연정, 강용란,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모,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김혜정, 김희영, 박기모, 박홍식, 송아영,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삼열,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운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민,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명욱,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양정윤,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황정진, 황혜원, 4만 우병훈, 5만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마민호,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진, 전희경, 황준용, 6만 석종준, 송종철, 장광희, 현숙경,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양성만, 엄준용, 윤원철, 장수영, 정은애, 12만 김기홍, 김민철, 김중호, 김주경, 박문식, 박안나, 박영진, 박지희, 박찬호, 서나영, 양지희, 조혜선, 최태연, 최홍영, 15만 최원일, 100만 정희영, 120만 유재복,

계 9,860,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6만 고신대학교도서관, 10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세로남교회, 새연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항남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횡동교회, 20만 남서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삼일교회

계 3,310,000원

전체 13,170,000원

회원후원

(2025년 3월)

5천 강대웅, 강연희, 공승건, 락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봉현, 김상욱, 김새별, 김성권, 김성욱, 김성한,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학,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종일,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백예은,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웅재, 고철웅, 구준호,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승오,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운,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세령, 김수민,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준,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중철, 김지근, 김진성,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노주하, 라영환, 류지호, 류현오, 류하원,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봉, 양성근,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웅,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태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희,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준, 이유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형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영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웅,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우성, 최승진,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한동빈, 한미영, 한신영, 허연, 허현, 홍구하, 홍요셉, 홍종인, 황기철, 황상준, 황성인, 황세한, 황혜수,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김상균, 2만 강석분, 강용란,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모,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혜일, 박홍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유재원, 이건,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중, 한화진,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운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민,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유승민,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황정진, 황혜원, 4만 우병훈, 이희진, 5만 강다일,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진, 전희경, 정은애, 황준용, 6만 강진규, 석종준, 송종철, 채수혁, 8만 문석운,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윤원철, 장수영, 12만 김민철, 박문식, 서미경, 최태연, 홍승현, 15만 최원일,

계 6,442,500원

기관후원

4만8천 고려신학대학원도서관,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양제일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6만 서울한영대학교도서관, 10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세로남교회, 새연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항남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횡동교회, 20만 남서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삼일교회,

계 3,408,000원

전체 9,850,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셋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체계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편집실무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셋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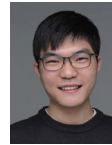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2025 Spring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사회적 갈등과 기독교세계관: 책임과 회복

5.31 (토)

13:00~18:00

대학원생

10:00~12:00

장소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조형과학관 102호

주제강연 [13:30-15:30]

1. 이념 분열의 시대, 기독교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최현진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윗버포스의 반노예제 운동: 사회적 갈등해소와 도덕자본의 정치

윤영위 교수

경북대학교 사학과

패널토의 :

주제강연자 전원 • 이명현 교수 • 김동춘 교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현대기독교연구원 대표

패널토의 사회 :

권정태 교수

호서대학교 기계공학과

리셉션 [15:30-16:00]

모든 학자, 연구자, 학생,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나눔의 장

일반주제 분과발표 [16:00-18:00]

경제/경영, 인문학, 교육학, 기술과학, 사회과학, 신학/철학, 세계관, 보건/의료,
공연/예술, 학제간연구

발표논문신청안내

- ▶ 2025. 5. 2.(금) 신청 및 요약본 마감
- ▶ 2025. 5. 9.(금) 논문제출 마감

신청·참가 bit.ly/2025춘계학술대회등록

논문제출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worldview.or.kr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 호서대학교

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 호서대학교, 새로남교회

문의 02-3272-4967 / gihakyeon@gmail.com (학회)